

문화 서울



국립극단 <천 개의 파랑>

1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천선란 작가의 SF소설 『천 개의 파랑』이 연출가 장한세의 손을 거쳐 국립극단 무대에서 공연된다. 로봇 혹은 비인간의 개념이 무대에 존재할 수 있을지 탐구하며 과학기술과 존재의 공존을 고민해온 장한세 연출은 국립극단의 창작극 개발 사업 '창작공간: 연출'을 통해 일 년여 시간 동안 작품을 빚었다. 김도영 작가가 각색을 맡았으며, 국립극단 최초의 로봇 배우도 출연할 예정이다.

4월 4일부터 28일까지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1644.2003



1

서리풀 고음악 시리즈 <거울: MIRROR>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은 '서리풀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2024년 기획공연을 소개한다. 그중 하나인 서리풀 고음악 시리즈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음악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프로그램 반포심산아트홀의 뛰어난 공간음향으로 고음악 악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소리의 균형까지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섬세하고 꾸밈없는 고음악의 순수한 매력을 탐미하는 서리풀 고음악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거울: MIRROR>에 초대한다.

4월 4일 오후 7시 30분 | 반포심산아트홀 | 02.3477.280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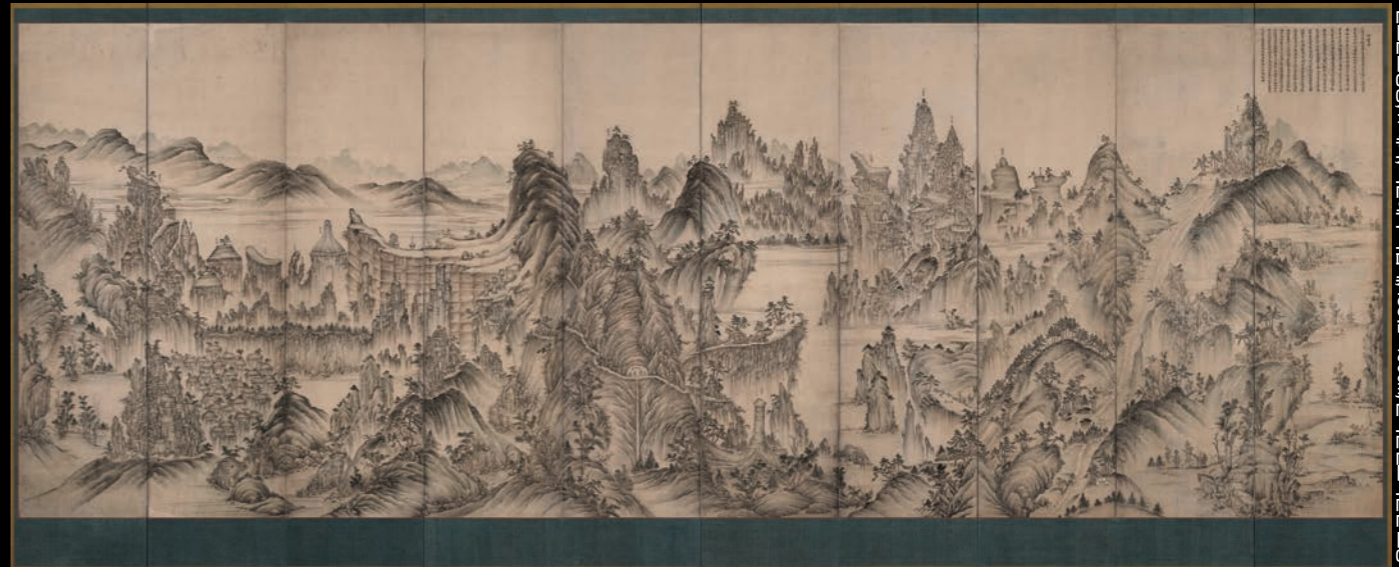
서울의 아름다운 봄꽃길 173

봄비람에 마음까지 설레는 요즘, 어디서든 꽃이 흠날리는 봄 풍경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서울시가 선정한 봄꽃길 173선을 참조하는 것. 57개소에 이르는 서울정원과 도심 곳곳의 매력적인, 약자를 위한 동행정원을 선정해 소개한다. 서울시 누리집 '스토리인서울' 또는 '스마트서울맵'에 접속해 가까운 우리 동네 봄꽃길을 찾아볼 수 있다.

seoul.go.kr/story/springflowerway mapseoul.go.kr



3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국립고궁박물관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나는 자리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해외 기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디지털 전시의 첫 사례로, 5월 26일까지 만날 수 있다. <칠보산도병풍>은 함경북도 명천에 소재한 칠보산 전경을 10폭 화면에 담은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이며, 이번 전시에는 친절한 작품 해설과 함께 작곡가 양방언의 음악이 함께한다.

5월 26일까지 |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02.3701.7500

4

2024 04.01

04.30

2024 04.26

2024 04.27

2024 04.28

2024 04.29

2024 04.30

2024 05.01

2024 05.02

2024 05.03

2024 05.04

2024 05.05

2024 05.06

2024 05.07

2024 05.08

2024 05.09

2024 05.10

2024 05.11

2024 05.12

2024 05.13

2024 05.14

2024 05.15

2024 05.16

2024 05.17

2024 05.18

2024 05.19

2024 05.20

2024 05.21

2024 05.22

2024 05.23

2024 05.24

2024 05.25

2024 05.26

2024 05.27

2024 05.28

2024 05.29

2024 05.30

2024 05.31

2024 06.01

2024 06.02

2024 06.03

2024 06.04

2024 06.05

2024 06.06

2024 06.07

2024 06.08

2024 06.09

2024 06.10

2024 06.11

2024 06.12

2024 06.13

2024 06.14

2024 06.15

2024 06.16

2024 06.17

2024 06.18

2024 06.19

2024 06.20

2024 06.21

2024 06.22

2024 06.23

2024 06.24

2024 06.25

2024 06.26

2024 06.27

2024 06.28

2024 06.29

2024 06.30

2024 07.01

2024 07.02

2024 07.03

2024 07.04

2024 07.05

2024 07.06

2024 07.07

2024 07.08

2024 07.09

2024 07.10

2024 07.11

2024 07.12

2024 07.13

2024 07.14

2024 07.15

2024 07.16

2024 07.17

2024 07.18

2024 07.19

2024 07.20

2024 07.21

2024 07.22

2024 07.23

2024 07.24

2024 07.25

2024 07.26

2024 07.27

2024 07.28

2024 07.29

2024 07.30

2024 07.31

2024 08.01

2024 08.02

2024 08.03

2024 08.04

2024 08.05

2024 08.06

2024 08.07

2024 08.08

2024 08.09

2024 08.10

2024 08.11

2024 08.12

2024 08.13

2024 08.14

2024 08.15

2024 08.16

2024 08.17

2024 08.18

2024 08.19

2024 08.20

2024 08.21

2024 08.22

2024 08.23

2024 08.24

2024 08.25

2024 08.26

2024 08.27

2024 08.28

2024 08.29

2024 08.30

2024 08.31

2024 09.01

2024 09.02

2024 09.03

2024 09.04

2024 09.05

2024 09.06

2024 09.07

2024 09.08

2024 09.09

2024 09.10

2024 09.11

2024 09.12

2024 09.13

2024 09.14

2024 09.15

2024 09.16

2024 09.17

2024 09.18

2024 09.19

2024 09.20

2024 09.21

2024 09.22

2024 09.23

2024 09.24

2024 09.25

2024 09.26

2024 09.27

2024 09.28

2024 09.29

2024 09.30

2024 10.01

2024 10.02

2024 10.03

2024 10.04

2024 10.05

2024 10.06

2024 10.07

2024 10.08

2024 10.09

2024 10.10

2024 10.11

2024 10.12

2024 10.13

2024 10.14

2024 10.15

2024 10.16

2024 10.17

2024 10.18

2024 10.19

2024 10.20

2024 10.21

2024 10.22

2024 10.23

2024 10.24

2024 10.25

2024 10.26

2024 10.27

2024 10.28

2024 10.29

2024 10.30

2024 10.31

2024 11.01

2024 11.02

2024 11.03

2024 11.04

2024 11.05

2024 11.06

2024 11.07

2024 11.08

2024 11.09

2024 11.10

2024 11.11

2024 11.12

2024 11.13

2024 11.14

2024 11.15

2024 11.16

2024 11.17

2024 11.18

2024 11.19

2024 11.20

2024 11.21

2024 11.22

2024 11.23

2024 11.24

2024 11.25

2024 11.26

2024 11.27

2024 11.28

2024 11.29

2024 11.30

2024 12.01

2024 12.02

2024 12.03

2024 12.04

2024 12.05

2024 12.06

2024 12.07

2024 12.08

2024 12.09

2024 12.10

2024 12.11

2024 12.12

2024 12.13

2024 12.14

2024 12.15

2024 12.16

2024 12.17

2024 12.18

2024 12.19

2024 12.20

2024 12.21

2024 12.22

2024 12.23

2024 12.24

2024 12.25

2024 12.26

2024 12.27

2024 12.28

2024 12.29

2024 12.30

2024 12.31

세실공류: 범고창신, 근현대춤 백년의 여정

한국 창작춤을 이끌어온 총관 51명의 무대가 4월 한 달간 펼쳐진다. 배우자·최승희·조택원 등 신무용 시기 춤부터 2000년대 이후 컨템퍼러리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변해온 우리 춤의 멋과 맛을 음미할 기회. 4월 4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8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4월 4일부터 30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세실 | 02.751.1500

5

2024 04.26

2024 04.27

2024 04.28

2024 04.29

2024 04.30

2024 05.01

2024 05.02

2024 05.03

2024 05.04

2024 05.05

2024 05.06

2024 05.07

2024 05.08

2024 05.09

2024 05.10

2024 05.11

2024 05.12

2024 05.13

2024 05.14

2024 05.15

2024 05.16

2024 05.17

2024 05.18

2024 05.19

2024 05.20

2024 05.21

2024 05.22

2024 05.23

2024 05.24

2024 05.25

2024 05.26

2024 05.27

2024 05.28

2024 05.29

2024 05.30

2024 05.31

2024 06.01

2024 06.02

2024 06.03

2024 06.04

2024 06.05

2024 06.06

2024 06.07

2024 06.08

2024 06.09

2024 06.10

2024 06.11

2024 06.12

2024 06.13

2024 06.14

2024 06.15

2024 06.16

2024 06.17

2024 06.18

2024 06.19

2024 06.20

2024 06.21

2024 06.22

2024 06.23

2024 06.24

2024 06.25

2024 06.26

2024 06.27

2024 06.28

2024 06.29

2024 06.30

2024 07.01

2024 07.02

2024 07.03

2024 07.04

2024 07.05

2024 07.06

2024 07.07

2024 07.08

2024 07.09

2024 07.10

2024 07.11

2024 07.12

2024 07.13

2024 07.14

2024 07.15

2024 07.16

2024 07.17

2024 07.18

2024 07.19

2024 07.20

2024 07.21

2024 07.22

2024 07.23

2024 07.24

2024 07.25

2024 07.26

2024 07.27

2024 07.28

2024 07.29

2024 07.30

2024 07.31

2024 08.01

2024 08.02

2024 08.03

2024 08.04

2024 08.05

2024 08.06

2024 08.07

2024 08.08

2024 08.09

2024 08.10

2024 08.11

2024 08.12

2024 08.13

2024 08.14

2024 08.15

2024 08.16

2024 08.17

2024 08.18

2024 08.19

2024 08.20

2024 08.21

2024 08.22

2024 08.23

2024 08.24

2024 08.25

2024 08.26

2024 08.27

2024 08.28

2024 08.29

2024 08.30

2024 08.31

2024 09.01

2024 09.02

2024 09.03

2024 09.04

2024 09.05

2024 09.06

2024 09.07

2024 09.08

2024 09.09

2024 09.10

2024 09.11

2024 09.12

2024 09.13

2024 09.14

2024 09.15

2024 09.16

2024 09.17

2024 09.18

2024 09.19

2024 09.20

2024 09.21

2024 09.22

2024 09.23

2024 09.24

2024 09.25

2024 09.26

2024 09.27

2024 09.28

2024 09.29

2024 09.30

2024 10.01

2024 10.02

2024 10.03

2024 10.04

2024 10.05

2024 10.06

2024 10.07

2024 10.08

2024 10.09

2024 10.10

2024 10.11

2024 10.12

2024 10.13

2024 10.14

2024 10.15

2024 10.16

2024 10.17

2024 10.18

2024 10.19

2024 10.20

2024 10.21

2024 10.22

2024 10.23

2024 10.24

2024 10.25

2024 10.26

2024 10.27

2024 10.28

2024 10.29

2024 10.30

2024 10.31

2024 11.01

2024 11.02

2024 11.03

2024 11.04

2024 11.05

2024 11.06

2024 11.07

2024 11.08

2024 11.09

2024 11.10

2024 11.11

2024 11.12

2024 11.13

2024 11.14

2024 11.15

2024 11.16

2024 11.17

2024 11.18

2024 11.19

2024 11.20

2024 11.21

2024 11.22

2024 11.23

2024 11.24

2024 11.25

2024 11.26

2024 11.27

2024 11.28

2024 11.29

2024 11.30

2024 12.01

2024 12.02

2024 12.03

2024 12.04

2024 12.05

2024 12.06

2024 12.07

2024 12.08

2024 12.09

2024 12.10

2024 12.11

2024 12.12

2024 12.13

2024 12.14

2024 12.15

2024 12.16

2024 12.17

2024 12.18

2024 12.19

2024 12.20

2024 12.21

2024 12.22

2024 12.23

2024 12.24

2024 12.25

2024 12.26

2024 12.27

2024 12.28

2024 12.29

2024 12.30

2024 12.31

Seoul Metropolitan Ballet

서울시발레단

6월 2일부터 3일까지 | 우린경 | 070.7606.6688

6

<때로는 동글게 때로는 반듯하게>

동네 자체가 거대한 알고리즘이 돼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선택권이 없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성수동의 한복판에서 우린문화재단은 자신만의 속도로 다른 이들과 호흡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2024년 첫 전시 <때로는 동글게 때로는 반듯하게>를 개최한다. 전시장 곳곳에 자신의 리듬, 강약, 그리고 속도를 드러내는 일곱 작가 김진곤·윤·박지원·서민우·이동훈·임선빈·태식그룹의 작품이 전시를 관람하는 당신의 움직임과 동행하며 호흡 맞추기를 기다린다.

6월 2일까지 | 우린경 | 070.7606.6688

7

NARU STREET DANCE FESTIVAL VOL.3

2024 나루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BREAKING & OPEN STYLE 2024

2024.4.27.SAT(DAY1) / 4.28.SUN(DAY2)

8

2024 나루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스트리트 댄스의 열풍은 계속된다! 3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브레이킹, 오픈 스타일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로, 광진문화재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 매년 더욱 화려해지는 라인업과 심사위원단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지난해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인기를 끈 레이디버논스·할로·왁시 등이 참여한다. 4월 27일과 28일 | 나루아트센터 야외공연장 | 02.2049.4700

칠보산도병풍 19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185.2x460cm,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2024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열아홉 번째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린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로 매해 4·5월 찾아오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올해 주제는 'All in the Family'.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해석해 폭넓게 담아내고자 했다. 올해 13일간 이어지는 14회 공연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예술가 60명이 함께하며, 지난해 ARD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스트 이해수, 윤이상국제콩쿠르를 시작으로 다수의 입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인 첼리스트 마리 할린크가 올해 새 얼굴로 함께한다. 축제의 오랜 전통인 프리즈 페스티벌 역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총 7회 이어진다. 서울공예박물관, 남산서울타워 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역사의 돌 등 시내 곳곳에서 음악의 향기를 만날 수 있을 것.



10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서울시 은평구를 기점으로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걸쳐 흐르는 불광천을 따라 아름다운 벚꽃축제가 열린다. 불광천 특설 수상무대에서는 국악인 남상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공연, 한국사강사 최태성에게 듣는 운동주 이야기,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축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책보고 쌀롱

2024. 4. 30(일) 15:00~17:00

서울책보고 '책보고 쌀롱'이 열린다. 3월에는 '영화'를 주제로 작가 겸 감독 정대건과 대화 시간을 가졌고, 4월 3일에는 문구 뉴스레터 '문구절절'의 발행인이자 『일본 도쿄 문방구 여행』의 저자 정수연과 '문구'를 주제로 자리를 마련한다. 앞으로 그림·커피·제과 웨이스트·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로 '책보고 쌀롱'이 열린다. 관심 있다면 서울책보고 누리집 또는 오프믹스에서 확인해보자.

11

9

〈필립 파레노: 보이스〉

전시와 작품과의 역동적 관계를 탐구하고 '시간의 경험'을 제안하며 1990년대 현대미술 형태의 혁신적 전환을 이끈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의 국내 첫 개인전이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199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3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베이 전시다. 미술관 야외 데크부터 로비와 블랙박스, 갤러리까지 드넓은 공간을 누비며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7월 7일까지 | 리움미술관 | 02.2014.6900

12

〈호모 프롬프투스: 굿모닝 믹스터 에이아이〉

서울역 뒤편 만리동광장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플랫폼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호모 프롬프투스(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자 생성형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을 지칭하는 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과 NFT 기반 디지털아트를 선보인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불러온 사회·문화적 변화, 그 변화의 물결 위에서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공공 스크린에 풀어냈다. 6월 19일까지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 010.6602.2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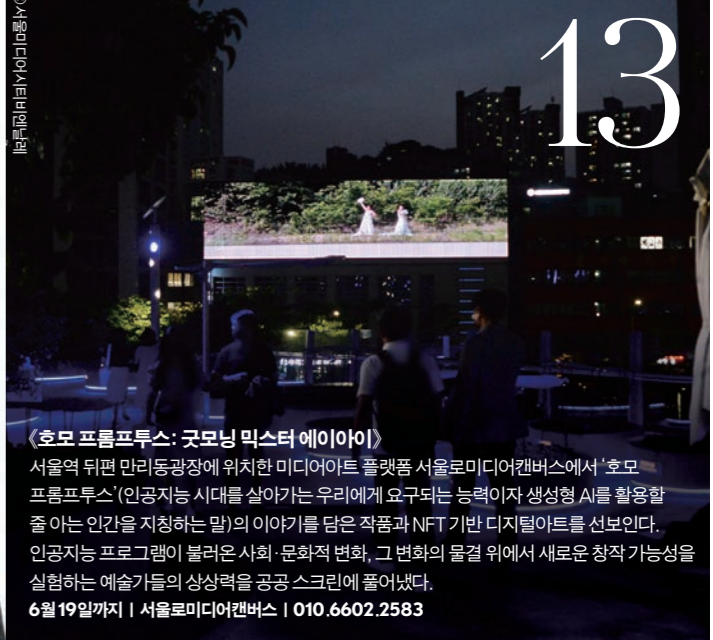
오늘의 전통음악, 4월의 '퀴드초이스'

꽃이 만개하는 4월, 대학로극장 퀴드가 주목하고 선택한 '퀴드초이스' 공연이 시작된다.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죽홍, 발현하다〉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 허윤정이 선보이는 공연. '죽홍'이라는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 연주와 창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음악적 발현의 순간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나오키 키타·기타리스트 오정수가 무대에 함께한다. 12일부터 14일에는 소리꾼 김윤희·타악 연주자 황민왕·전자음악가 Jundo의 〈틀: Lost&Found〉가 열린다. 공간과 음악을 통해 전환의 감각과 가치를 제시하는 공연으로, 판소리 춘향기를 토대로 한 무대로 판을 다시 짓고, 검기를 청한다. 19일과 20일에는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와 박다울의 두 세계가 만나는 〈검고막다른〉이 막을 올린다. 거문고라는 전통악기를 토대로 다양한 실험을 선보이며 서로의 자작곡 6곡을 함께 편곡해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14

뮤지컬 〈헬렌앤미〉

금나래아트홀은 기획공연으로 배리어프리 뮤지컬 〈헬렌앤미〉를 선보인다. 시청각 장애인이자 작가, 사회복지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와 그녀 곁에서 성장을 도와준 앤 셸리번의 뜨거운 우정 일대기를 그린 무장에 뮤지컬 공연이다. 4월 27일 오전 11시·오후 3시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오늘의 전통음악, 4월의 '퀴드초이스'

꽃이 만개하는 4월, 대학로극장 퀴드가 주목하고 선택한 '퀴드초이스' 공연이 시작된다.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죽홍, 발현하다〉는 거문고 연주자이자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 허윤정이 선보이는 공연. '죽홍'이라는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 연주와 창작이 동시에 이뤄지는 음악적 발현의 순간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나오키 키타·기타리스트 오정수가 무대에 함께한다. 12일부터 14일에는 소리꾼 김윤희·타악 연주자 황민왕·전자음악가 Jundo의 〈틀: Lost&Found〉가 열린다. 공간과 음악을 통해 전환의 감각과 가치를 제시하는 공연으로, 판소리 춘향기를 토대로 한 무대로 판을 다시 짓고, 검기를 청한다. 19일과 20일에는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와 박다울의 두 세계가 만나는 〈검고막다른〉이 막을 올린다. 거문고라는 전통악기를 토대로 다양한 실험을 선보이며 서로의 자작곡 6곡을 함께 편곡해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15

14

13

16

아카이브

공유협력문화

영등포 이야기연구소

공유협력문화

영등포 문화대담장

상호문화

상호문화LAB

상호문화

크리에이티브 협동학교

상호문화

도시연대 프로젝트

온라인에서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나는 법

새로운 '문화도시 영등포' 누리집이 공개됐다. 매거진을 콘셉트로 기획된 누리집은 문화 생산 도시 영등포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겨 있다. 이야기와 인터뷰를 기록한 '매거진',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정보가 있는 '프로그램', 문화도시 사업 결과물을 모은 '아카이브', 문화공간의 위치가 표시된 '문화지도' 등 카테고리에서 풍부한 영등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ccydp.kr



<티에리 위에의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속 장면들이 현대음악으로 재탄생한다. 프랑스 현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티에리 위에의 음악으로 만든 콘서트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내레이터까지 단 세 사람의 예술가가 이야기를 펼친다.

4월 12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 1668.1352

© Cité de l'espace Toulouse

17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2024 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1일에는 '도서관과 리더십,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리며, 12일에는 미래 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소설가 최은영과 함께하는 대담과 '밝은 밤'을 판소리로 풀어낸 공연이 펼쳐진다. 이를간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요즘 도서관 뭐함?'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 도서관이 한데 모이는 도서관 소풍을 벌일 예정.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 작가 강연과 토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때만큼은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library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어린이를 위한 풍당풍당 키즈 클래식
강동문화재단은 4월 27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클래식 음악 공연 (풍당풍당 키즈 클래식)을 연다. 일반 공연에 입장하기 어려운 4세부터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은 7월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이어진다.
4월 27일 오전 11시·오후 2시 |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 02.440.0500



한옥마을에서 즐기는 콘서트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목·금요일(7·8월 제외), 남산골한옥마을 관훈동 민씨 가옥에서 아주 특별한 한옥콘서트 <우주>가 열린다. 역사의 시간을 품은 한옥에서 봄을 시작으로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며 추억을 만들고, 잠시 쉬어가며 서로의 우주가 돼주는 시간. 4월 4일과 5일에는 소리꾼 이희문이 소리 한 자락을 들려준다.

20

19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SCENE

제2회 서울예술상

10

스케치

박수갈채에 담긴 격려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현장

14

인터뷰

출, 일상의 노동이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
대상 수상자 장혜림

18

리포트

제2회 서울예술상 수상작 16

26

예술가의 진심
안성수의 춤이 짓는 필연의 묘

32

예술인 아카이브
김채원

34

예술인 아카이브
고영열

36

페이퍼로그
무대기재공유센터 유민균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38

인사이드
365일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42

인사이드
미래를 향한 빛을 밝힌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46

인사이드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공론의 장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48

트렌드
'볼레로'는 왜 법정에서 서게 됐나

COLUMN

52

박현갑의 문화의 창
거리를 거닐며 도시의 철학자를 만나다

54

동시대적 고전 읽기
고도를 함께 기다리는 마음

56

삶의 책장을 넘기며
서울, 가장 화려한 회색도시

58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기 훈련

60

일상 결의 공예
세계가 주목한 K-공예의 면면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COVER STORY

소울프렌즈 해치와 예술섬노들
단청의 붉은색과 쪽빛의 푸른색을 온몸에 머금고 귀여움으로 무장한 서울의 새 마스크트 '해치'가 노들섬에 등장했다. 재앙을 막고 복을 주는 '파워공정' 해치가 지키는 노들섬이 궁금하다면 38쪽에서. 사진 Studio Kenn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서울을
수놓은
예술에
보내는 찬사
제2회
서울예술상

모두가 둘러앉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가장 마지막 순서로 대상을 받은 장혜림 99아트컴퍼니 예술감독은 단상에서 내려와 무용수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 연습실에서 보낸 숱한 시간이 인정받는 기분'이라서, 또 '우리에게 소중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주는 것에 감격해서' 그렇단다. 그렇게 시상식은 또 한 편의 공연이 돼 이날만큼은 관객이 된 예술가들을 울고 웃게 했다.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

박수갈채에 담긴 격려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현장

따뜻한 축하, 열렬한
응원이 가득했던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다.

2월 28일 오후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 2월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진행한 제1회 시상식보다 규모를 더욱 키워 예술인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연 것. 그 뜨겁고 몽클했던 시상식의 열기를 전한다.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작과 일 년 동안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 작품 중 경쟁력 있는 우수작을 선발하는 순수예술 분야의 시상 제도다. 재단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창작 동기를 유발하고,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며, 작품의 유통과 확산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서울예술상을 제정했다.

2023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선정작 526건 가운데 326건이 제2회 서울예술상 후보작으로 등록됐고, 총 54명으로 구성된 서울예술상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금일 시상식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발표됐다. 대중예술 분야의 시상식은 흔한 장면이지만, 순수예술 분야에는 이러한 자리가 드물기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었다.

올해는 기존 시상 대상인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에 이어 다원까지

장르를 확대하고,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작 외에 2023년 서울에서 발표된 작품과 활발하게 활동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새롭게 제정했다. 양질의 예술 작품을 발굴해 좋은 작품이 꾸준히 지원받고, 충분히 주목받도록 하는 과정은 예술의 창작과 향유,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선순환 예술지원체계의 발판이 됐다.

식전 행사로 포토존이 마련된 해오름극장 로비층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시상과 수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예술계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현장을 가득 메웠다.



포토존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등장이었다. 포르쉐 프런티어상 시상자로 나서기도 한 안은미는 스스로 인간 화환이 되기를 자청한 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장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시부터 열린 시상식의 첫 번째 시상 부문은 장애인예술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이었다. 해당 부문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에게 열려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상자로 나선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는 본 시상식 “예술에 장애가 문제가 될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영광의 1회 수상자는 시각장애인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이 차지했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유망예술가에게 수여되는 포르쉐 프런티어상도 눈길을 끌었다. 해당 시상



부문은 포르쉐코리아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포르쉐 프런티어상은 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예술인의 더 나은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더불어 서울예술상의 격조를 높인 좋은 사례가 됐다. 직접 수상 예술인들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홀가 게어만(Holger Germann) 포르쉐코리아 대표와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공동 진행으로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장르별 각 1건, 총 6건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무용 장르의 시나브로 가슴에는 3월에 대학로에서 진행될 새로운 공연 홍보로 짧고 굵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음악 장르의 작곡가 이문희는 “일생 열심히 돈을 벌어 언젠가는 포르쉐를 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쾌한 소감으로 좌중에 웃음을 전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 발표에 앞서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이 출연했다.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작인 허윤정의 악가악무 <절정絶靜> 중 ‘인당, 청의 바다’를 선보인 것. 고수 김태영과 소리꾼 정윤형이 함께 무대에 올라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 바다로 나가고, 물에 뛰어드는 ‘심청가’의 백미를 선보였다.



등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춤으로 배워왔으며, 영혼에 울림을 주는 춤으로 99아트컴퍼니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다”는 진정성이 가득 담긴 소감으로 수상의 기쁨을 전하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국립극장에 울려 퍼지는 구성진 판소리 가락과 무대 후면부 과도치는 바다를 표현한 미디어아트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통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손색없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선정작 중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99아트컴퍼니의 무용 작품 <제ver.3 타오르는 삶>이었다. 수상자로 무대에 선 안무가 장혜림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한국춤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호흡하는 법, 땅에 딛고 서는 법,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법

시상자와 수상자가 모두 무대에 올라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제2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의 공식 행사는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시상식장 밖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도 동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남기며 여전히 상기된 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시상식이 있기까지 예술인들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긍심과 긴장이 좋은 자극이 돼 앞으로의 예술 활동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은 모든 예술인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춤, 일상의 노동이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

대상 수상자 장혜림

영예의 수상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역시 '춤' 덕분 아니겠냐며 활짝 웃는, 99아트컴퍼니 예술감독이자 무용가 장혜림과 만났다.

제2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가 발표되는 순간 기분이 어땠나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예술 전 장르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무용을 대표해 상을 받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발표되고 저희 무용수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것이 감격스러웠대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과 연습실에서 보낸 솔한 시간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동이었죠. 무용수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노력했는지 알기에 그들에게 이 상을 안겨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스크린에 부모님의 모습이 비쳤어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제 진정한 팬이신데, 힘들게 춤추는 자녀를 본다는 게 항상 마음 쓰이는 일이라 '이제 그만하지' 하는 마음도 있으시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저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무용을 시켰는데, 이렇게 업으로 삼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거든요.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 차에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상금 2천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원금을 못 받거나 예산이 없을 때면 이렇게 상금을 주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만두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봐요.(웃음) 올해도 10월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같이 상금이 생겨서, 바로 주저하지 않고 공연에 쓰겠다고 정했습니다.

고생한 무용수들에게 감사를 전하시기에 상금으로 고기를 사주실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고기 먹었어요.(웃음) 사실 시상식이 열린던 날 저녁에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상식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무용수들이 말은 못하고 혹시 연습이 없어나 기대하고 있었대요. 참 착한 사람들이죠. 그날만큼은 연습을 뒤로 하고 모두 고기를 먹으며 수상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수상작 <제ver.3 타오르는 삶> 이야기를 해 볼까요? 가장 처음 어떻게 시작한 작품인가요?

2018년 한국과 스웨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스웨덴 커넥션'이라는 공연을 기획했어요. 그때 안성수 예술감독님께서 두세 달 정도 스웨덴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용기가 저를 도전하게 한 것 같아요.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려면 전통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떠오른 춤이 '승무'였습니다. 승무는 세계 기도의 춤처럼 느껴졌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 '레위기'를 보면 고대의 제사법 중 동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신에게 전하는 번제(燔祭)가 나오는데, 이 시대의 번제는 자신을 태워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제祭>에는 스웨덴 말뚝(Malmö)에 있는 스코네스 댄스시어터(Skånes Dansteater)의 무용수 7명이 출연했고, 스웨덴과 한국에서 공연한 후 이탈리아 무대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스웨덴 무용수들은 한국춤의 움직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승무의 춤사위와 호흡법을 공유했고, 한국춤의 숨 쉬는 방법, 북을 칠 때 손의 움직임도 가르쳐줬습니다. 이 춤이 작품〈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시켰는데, 모두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어했어요. 특히 호흡법에 대해 이렇게 숨을 쉬어 본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연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고 이 작품을 연작으로 이어간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아쉬운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수정할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레 버전 2로 넘어가게 됐어요. 당시 작품을 만들면서 '노동'이라는 오브제로 목탄을 쓰려고 했는데, 스웨덴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용수들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기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대안으로 무용수들이 손에 목탄을 바르고 있다가 몸에 묻히는 방법으로 공연했지만, 저는 그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연습실에서 종이를 깔아놓고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서 손을 마주 잡고 그리는데 2인무인 〈제ver.2 타오르는 삶〉이 만들어졌고요. 항상 그렇지만 공연이 끝나면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공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폭 수정하기도 해요. 세 번째 버전인 〈제ver.3 타오르는 삶〉으로 상을 받은 지금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5월에 있을 영국 런던 더 플레이스The Place 공연에서 꼭 수정하자고 무용수들과 약속했습니다.

무대 위에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자가 함께했죠.

승무의 음악은 대부분 장단으로 이뤄져 있잖아요. 저는 타악기가 아닌 악기로 음악을 구성해보면 어떻게 하는 호기심에 가야금 연주자 주보라에게 두 번째 버전의 음악을 부탁했습니다. 여성 무용수 두 명이 한 시간을 끌어가는 작품이니 연주자도 두 명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죠. 보라 씨가 거문고를 제안했는데, 좀 위험한 구성이지만 섬세한 현악기 두 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기대가 됐습니다. 연습실에서 함께 만들며 완성했어요.

그 후 〈제ver.3 타오르는 삶〉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그사이 버전 2.5라고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었는데, 2021년 창작산실에서 올해의 레퍼토리 지원을 받아 두 번째 버전을 재공연하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노년의 무용가가 이 춤을 추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승이자 80세의 원로 무용가이신 배정혜 선생님을 〈제〉 안에 녹여내는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했는데, 배우이 큰 작업이었어요. 그다음 해에도 공연할 기회가 생겼는데, 문득 기금을 받아서 4~5년 정도 지난 이 작품을 관객에게 똑같은 캐스팅, 똑같은 춤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웨덴 커넥션' 중 다른 작품에 출연했던 무용수 안나 보라스 피코Anna Borrás Picó가 떠올라 섭외했고, 〈제ver.3 타오르는 삶〉을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지난해 10월에 선보인 무대가가장 최근 버전인데, 앞으로 새로운 〈제〉가 계속 만들어질까요?

네. 앞으로 만들고 싶은 〈제〉는 남성 무용수 버전이에요. 음악도 그에 맞게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음악이 좋아서 그대로 두고 남성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구상을 했는데, 음악가들이 음악도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기 구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장르 제한 없이 우리 작품을 빛내줄 남성 무용수들을 유심히 찾고 있습니다.

무용단 이름인 '99아트컴퍼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리고 '나인티나인'과 '구구' 중에 어떻게 읽어야 하죠?

'99아트컴퍼니'는 2014년에 만들어져 이제 10년이 됐는데, 평소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 99에 의미를 두게 되더라고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생각하며 정한 이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99의 의미가 토양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게

전통춤일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서, 단단한 토양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무궁무진하게 자란다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나인티나인'으로 읽었지만, '구구'도 정감 있고 좋아서 이제는 두 가지 모두 부르고 있어요.

지난해 신진통 작품 〈사랑가〉를 추셨어요. 앞으로도 전통춤을 계속 추실 건가요?

물론이죠.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정혜 선생님을 모셔서 저희 무용수들과 전통춤을 수련하고 있어요. 우리 춤은 제 창작의 기저에서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잊지 않으려 해요. 궁중 정제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조용한 무용가인데, 리더로 무용단을 이끄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저는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도 힘든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희 무용수들은 이런 망각하는 성격이 제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얽매어 있거나 뭔가가 너무 많이 축적되면 예술을 하기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10년 동안 무용단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던 이유는, '쉬지 말자'는 자세였습니다. 뭔가 막히고 힘들 때 쉬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반 발짝 앞으로 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면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게 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춤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어릴 때는 내 인생의 전부 같았어요. 춤추는 것에 미칠 정도로 좋았거든요. 밤새 음악을 틀어놓고 자면서, 음악이 내 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안무를 하게 되면서 춤은 제게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방법, 무용수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이 저를 훈련하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 후로 또 10년이 지나 보니 춤은 저를 믿게 해주는, 그런 존재 같아요. 이번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춤 덕분이고, 제가 무대 위에 존재하고 관객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전부 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춤은 나를 세상과, 또는 누군가와 연결해주는 존재이고, 이제는 어느덧 가장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무용단과 스코네스 댄스시어터의 안무 교류 프로젝트로 선보인 정혜림 안무 〈제〉 ©Tilo Stenge
← 2021년 무용가 배정혜가 특별 출연한 〈제ver.2 타오르는 삶〉 ©BAKi

제2회 서울예술상 수상작 16

저마다 다른 색깔과 개성으로 2023년 서울의 예술 현장을 빛낸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고, 수상 소감을 들어본다.

장애예술인
심사위원 특별상-예술인

김보경

시각장애인가야금 연주자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김보경은 국악 분야 장애인 연주자의 무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외를 누비며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음악가'가 아닌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서 장애인 예술가의 모범이 되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이므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허윤정 교수님께서 대상을 받은 시상식에 제가 이렇게 상을 받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장애예술인 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힘쓰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주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극
최우수상

우리 교실

청춘오월당 | 2023년 6월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폴란드 극작가 타데우시 스토보지아네크 Tadeusz Stobrodzianek의 희곡을 전용환이 연출했다. 버려진 교실을 무대로 유령이 된 같은 반 친구들 10명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현대사회에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빛과 질감을 활용한 무대, 중견 배우들의 연기, 음악 등 요소가 앙상블을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청춘오월당 대표이자 연출을 맡은 전용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상을 주신 서울문화재단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남 배우를 비롯한 10명의 정말 재능 있는 배우들, 헌신적인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태까지 피 빨아 먹고, 앞으로 피 빨아 먹을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작업실로 가서 치열하게 연구해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포르쉐 프린티어상

다른 부영

극작가동인 괄호 | 2023년 11~12월 | 나온씨어터

공동 극작/함께 쓰기의 방식이 그간 매우 진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공동 창작 대본임에도 동시대 여성·청년 서사라는 주제 면에서 높은 통일성을 보이고 있으며, 문학과 연극성 또한 잘 보여준다. 창작극 레퍼토리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다른 부영〉은 극작가동인 괄호에서 8개월간 공동 극작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극작가 4명과 드라마티그 1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쓴 결과 수상으로 이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다른 부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작품 개발을 도와주신 우란문화재단, 뜻깊은 상을 주신 서울문화재단, 또 희곡이 무대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미란 연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나희경 피디님, 부영과 다른 부영을 멋지게 이끌어주신 백혜경·장샘이 배우님, 멀티 역할에 애써주신 이세준·이영주 배우님,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써주신 송성원·박유진·전석희·김태령·장현지·문현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극작가동인 괄호의

연극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멤버 김진희·김민조·도은·신효진·이소연, 앞으로도 지지 않고 함께 끈끈하게 계속 써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연극 동료들도 그 자리에서 애써 버티기보다, 그저 끝까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기술, <줄>

작당모의 | 2023년 6월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리얼리즘 서사가 아닌 오브제와 마임, 춤, 장난스러운 무대 이미지, 놀이 등 자유분방한 연극성 놀이와 유쾌한 상상력이 발달하다.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 장기판 위의 '줄'에 주목한 소재와 주제의 기발함, 관습을 훌쩍 뛰어넘는 연출적 감각, 긴장과 유머를 잘 넘나드는 극적 리듬감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다.

“2024년, 저희는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탈락 소식과 함께 새해 벽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예술상 특별상을 준다고 하시기에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순수예술은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가장 영혼의 밥이 되는 분야이지요. 저희는 장기판에서 가장 작은 줄이 장군을 부르듯이 한번 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단체에 배부르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당모의는 서울예술상을 기반으로 배부르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용
대상

제ver.3 타오르는 삶

99아트컴퍼니 | 2023년 10월 | 국립극장 하늘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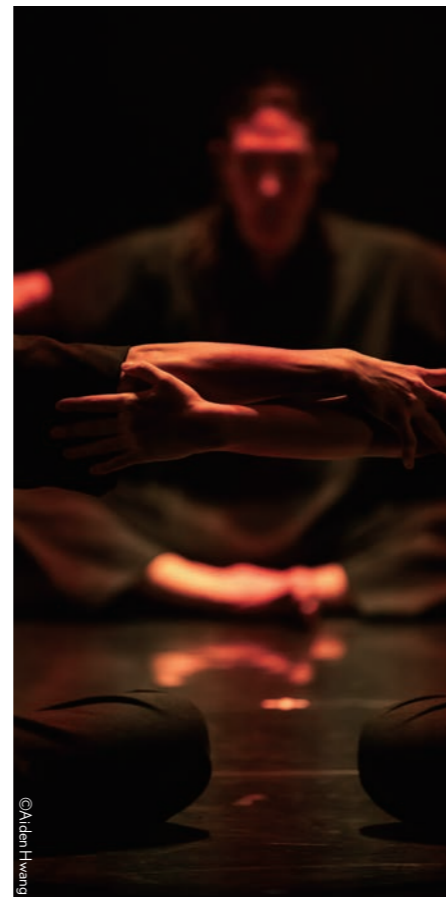
노동에 관한 탄탄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오브제·조명·의상·음악 등에서 다각적인 표현을 보여주었으며, 국내외 무용수와의 밀도 있는 협업으로 한국 창작춤의 저변을 확장했다고 평가한다. 한국무용의 승무 장단을 기반으로 노동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동시대 상상력과 전통춤의 수준 높은 접목, 신체 미학적 완성도와 무대의 요령 있는 활용이 시너지를 일으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구현됐다.

“지난해 10월 바로 이 공간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다소 작은 규모의 작품이 큰 극장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뜻을 구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보낸 시간이 떠오릅니다. <타오르는 삶>은 인간 삶에서 노동의 가치를 숭고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후반부쯤 무용수들이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무용수에게 ‘이 장면에서는 그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만큼 힘들었으면 좋겠어’, ‘힘든 걸 연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혼신을 다해 춤을 춰준 저의 뮤즈 서이 씨, 그리고 고운이, 안나 보라스, 승아가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뒤에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서울문화재단의 노력,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99아트컴퍼니

무용
포르쉐 프런티어상



©Adem Hwang

Earthing

시나브로 가숨에 | 2023년 10월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밀도 있는 안무와 실연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젊은 무용가에게 작품 창작(과정)에 관한 우수한 선례를 보여준다. 국제 협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단체의 작품 색을 지켜내고 있으며 빛과 몸, 소리와 공간이 잘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작품. 무엇보다 움직임에 집중해 치밀한 구성으로 연출하는 안무 스타일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수상 소식이 너무 기쁘고, 또 떨립니다. <Earthing>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단체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작품인데, 상까지 받게 돼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공연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층의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도 공연하는데,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무용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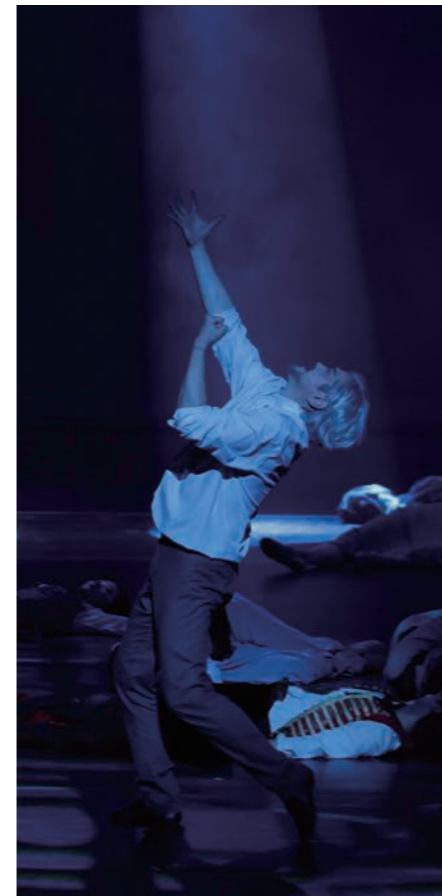
레미제라블

댄스시어터사하르 | 2023년 7월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가족 단위 관객이 향유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발레극으로, 스토리라인, 캐릭터 묘사 등에 있어서 창조적인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적인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댄스시어터사하르는 민간 독립 발레 단체로 어린이·청소년에 특화된 전막 발레를 꾸준히 창작해왔고, 춤 예술의 필요성과 가치를 예술교육과 시민 향유의 측면으로 확장시켜왔다.

“이 작품은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몇 번을 포기하려고도 했고, 공연이 계속 무산되는 과정에서 겨우 올려졌는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원작 소설에 나오는 이들보다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지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큰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창작 활동 하겠습니다. 상금은 아직도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예술인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음악
최우수상

마태 수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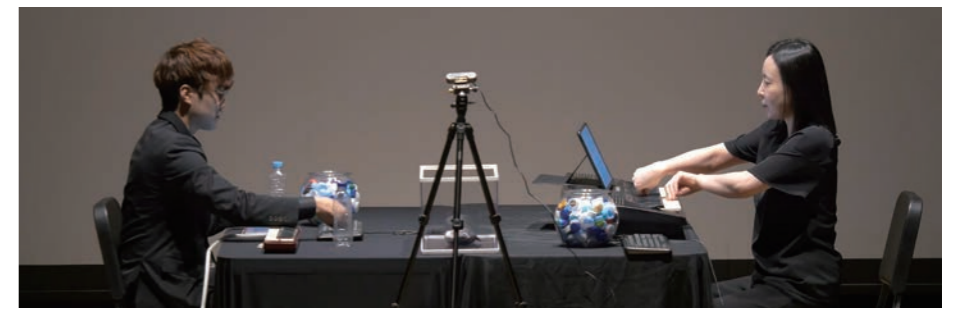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 2023년 3월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련된 앙상블과 극적 기복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해석으로 기념비적 명곡인 바흐의 작품에 동시대적인 감동을 불어넣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 무엇보다 한국에서 ‘고악기’로 바흐 마태 수난곡을 완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공연의 높은 완성도를 통해 한국의 고음악, 종교음악, 합창 및 연주 등 모든 면에서 특별한 기준이 세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지휘자 김선아입니다.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은 이름도 어렵죠. 그런 저희는 지난 17년 동안, 전문 성악가들이 모여서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 한 분야를 정말 열심히 연주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정점이 바로 지난해 바흐의 마태 수난곡이었습니다. 오늘 시상식 자리에 와서 보니, 이렇게 정말 귀한 총평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고, 또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마중물 같은 재원을 지원해준 서울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주를 위해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주신 우리 단원 한 분 한 분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포르쉐 프런티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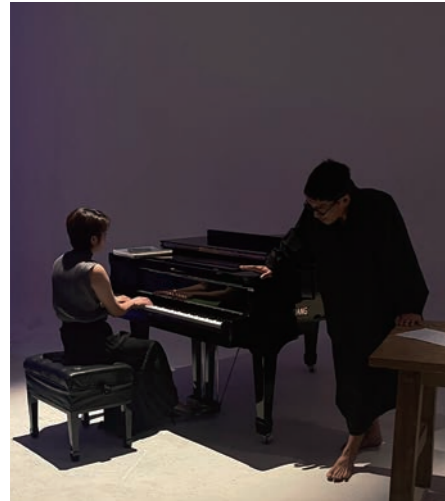
재활용 협주곡

이문희 | 2023년 11월 | 일신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재연 가능한 콘서트용 작품으로, 존 케이지가 여러 정크 퍼커션을 사용한 이후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경고라는 육중한 메시지와 작곡가 고유의 독특한 음악어법이 조화를 이룬 흥미로운 무대로, 동시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진전시켰다.

“올해 포르쉐 프런티어상이 신설됐다는 걸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이 상을 받은 만큼, 일생 동안 열심히 벌어서 꼭 포르쉐를 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웃음) <재활용 협주곡>은 제 두 번째 개인 작곡 발표회입니다. 작곡가이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음악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데서 창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 취지가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서울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악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Dialogues×Punto Blu II 'Beethoven: Waldstein- Repetition'

배승혜 | 2023년 6월 | 뽀또블루

극 형식을 빌려 창작자의 창작 과정을 되돌아보도록 메시지를 던진다. 악보에 적힌 지시를 재현하는 클래식 음악 연주의 편견을 깨고, 음악을 극으로 이해하게 하고 연극을 음악적으로 듣게 하는 이중적이고 교차적인 상호 텍스트성의 경험을 선사한다. 무대 공연을 준비하는 음악가와 새로운 공연을 찾는 감상자에게 주목받을 가치 있는 시도였다.

“저는 장르와 장르 간, 그리고 무대와 객석 간,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작품 안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이얼로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대화가 늘 유쾌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되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조금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이런 상이 주어지네요. 제게는 너무나 뜻깊고, 또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라는 격려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망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피아니스트 정다슬을 비롯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준 동료분들과, 또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작품 속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내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
최우수상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10주년 기념 콘서트 'X'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 2023년 9월 | 백암아트홀

전통과 재즈의 크로스오버 연주가 식상하지 않으며, 국악 전문가와 일반 관객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성과 연주기량을 보여준 작품이다. 국악 공연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구성과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전통예술의 장르적 특성, 작품성, 관객과의 소통, 동시대적 감각 등이 시대에 적합한 전통예술의 창작과 발전 가능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서울이 너무 좋습니다.(웃음) 저희는 아쟁 하는 윤서경, 대금 연주자 이영섭,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 해금 연주자인 김승태,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우리 음악으로 한판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만든 팀 '4인놀이'입니다. '사물놀이'의 가품 아니냐는 얘기를 초반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저희가 벌써 10주년이 되었고, 기념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전통음악은 즉흥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호흡하면서 예술을 창출해내는 것이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많죠.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더 예술로 끌어다와서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멋진 자리에서 수상하게 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통
포르쉐 프린티어상

무조巫祖: 순환으로부터

방지원 | 2023년 11월 |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방지원을 비롯한 굿 분야의 젊은 연희자들이 굿의 즉흥성, 현장성, 대중성, 퍼포먼스를 살려 새로운 시도를 모색했다. 연주뿐 아니라 연희, 움직임, 소리 등이 훌륭하게 어우러졌으며, 이를 통해 공연 장소의 열악함까지도 극복했다. 젊은 연희자들의 의지와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공연이다.

“타악 연주자이자 동해안 굿판의 화랭이 방지원입니다. 말 잘하는 게 원래 제 장기인데, 큰 자리에 오니 말이 잘 안 떨어지네요.(웃음) 우선, 창작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참 제게는 과분한 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게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봐주신 서울문화재단 여러분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즐겁게, 또 겸손하게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영예의 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최우수상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신미경 | 2023년 3~6월 | space*c

전시의 완성도와 더불어 비평적 담론의 지속적 확장이 눈에 띄었다. 중견 작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탐구하는 데 매진하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한결같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동시대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미술 전시회'의 긍정적 현재를 드러낸다.

“신미경 작가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대신 꼭꼭 눌러쓴 수상 소감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예술상 시각 부문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여정이 30년가량 되어가는 동안 제게 여러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나 기쁘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로서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각
포르쉐 프린티어상

Hall 2

김동희 | 2023년 4~5월 | Hall 1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는 작가 특유의 감각적 전환을 매우 능숙하게 보여준 전시로, 완성도와 더불어 미술계 안에서 비평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간과 조형, 관람객까지 아우르며 실험성을 진지하게 드러내면서도 완성도를 위한 형식과 내용의 다각적인 연구 결과물은 작가의 프린티어로서의 태도를 보여준다.

“제가 처음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쓴 것이 2014년입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찾아 그 공간을 바꿔보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때 재단의 지원이 있어 그 구상을 실현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즐겁게 작업을 이어왔고, 어언 10년이 지나 상까지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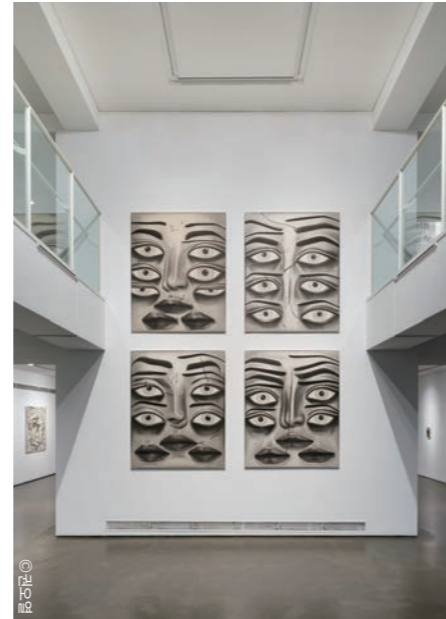


시각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모든 것 all things

김정욱 | 2023년 12월~2024년 2월 | OCI미술관

동양화재료와 형식을 이어가며 전통성을 계승하는 방법론을 구사하는 동시에 소재의 독특한 관념과 주제로 현대미술계에서 호평받는 작가. 8년 만의 개인전을 통해 동시대 미술계 안에서 자신의 시각언어를 가지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신작 창작과 비평적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포르쉐 프린티어상

눈 먼 입 Eyes Far Lips Concert Act.2

이연석 | 2023년 10월 | 원드림

서로 다른 매체의 연접을 시도한 부분에서 ‘다원’의 방향성이 보이며, 회화 형식에 대한 동시대적 재해석이라는 비평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실험성이 돋보이는 기획이다. 이를 협업자와 밀도 있게 구성한 전시·공연으로 선보였다. 퍼포먼스라는 형식에 대한 집중과 몰입이 매우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자신만의 방식과 언어를 더 갈고닦아 발전시킬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한다.

“작업을 하다보면 다른 일도 함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이 상이 굉장히 큰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을 함께해준 제 친한 동료들 덕분에 《눈 먼 입》이라는 전시와 공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안성수의 춤이 짓는 필연의묘

예술인 아카이브

김채원

고영열

페이퍼로그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유민곤

인사이드

365일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트렌드

‘볼레로’는 왜 법정에서 서게 됐나

안성수의

춤이 짓는 필연의 묘

안무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인 안성수와 제대로 처음 대면한 건 2014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이었다. 영화 10도까지 쉽게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정작 안성수와 한국 무용수들은 뜨거웠다. 세계적인 공연예술마켓인 제6회 시나르CINARS의 공식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된 안성수픽업그룹의 <장미Rose (The Rite of Spring)> 공연이 호평받았기 때문이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의 음악적 구성을 몸을 통해 엿박자 구조로 풀어낸 <장미>는 '장면마다 구체적'이라는 감상평을 들으며 세계 공연 관계자들을 설득해냈다. 당시 안성수는 "저도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취향이 세죠. 그럼에도

시나르에 모이신 분들은 우선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이후 안성수의 행보는 자신의 확고한 기질에 다른 성질을 가진 이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이었다.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선보인 개성 강한 모든 작품이 흥행한 것이 그 증거다. 진심을 부러 강조하는 진부함의 우를 피하는 대신, 필연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묘. 온화함 속에 숨겨둔 안성수의 비수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종M씨어터에서 펼쳐지는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 <장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줄 안성수를

최근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연습실에서 만났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장면마다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의 일환인 <ROSE>도 그렇고, 같은 달 국립정동극장 기획공연 <봄날의 춤>에서 선보일 <스윙어게인>도 그렇고 '안성수의 작품들이 점차 우리 현대무용계 클래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제가 동료 무용수들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바탕으로 <장미>2009를 만든 지 약 15년이 됐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봄의 제전>2018을 만들었고,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은 발레 무용수들과



〈ROSE〉작업을 하고 있죠. 새로운 게 계속 떠올라요. 물론 좋은 부분은 계속 남겠지만, 새로운 느낌의 움직임과 구성이 나와서 즐겁습니다. 이번 〈ROSE〉는 조금 더 화려해졌을까요?

어떤 부분이 더 화려해진 걸까요?

조금 더 발레 움직임이 많이 썼어요. 예전에 김보람 씨가 선보인 힙합 움직임이 아직 작품에 좀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발레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요.

공공의 지원을 받아 발레단이 새롭게 창단하는 건 무용계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게다가 공공

↓ 2023년 5월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퀴드초이스'로 선보인 안성수 안무 〈차피타씨〉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BAKI



컨템퍼러리 발레단인데요. 이미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을 맡아 예술단체의 공공성 역할을 잘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좋은 일이지요. 우리나라에 좋은 무용수들이 많아요. 물론 그들이 외국에 진출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무용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큰 의미지요. 요즘 유럽이나 미국도 컨템퍼러리 발레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서울시에서 한다는 게 큰 의미인데, 다른 시로도 퍼지면 좋겠어요.

국립현대무용단에 재직할 당시 무용단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국악을 적극 사용하기도 하셨죠.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관객이 많아진 게 가장 뿌듯했죠. 무용수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준 덕분이예요.

현대무용도 흥행이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주신 건데, 매번 근사하고 세련된 작품을 선보여서 젊은 관객의 호응도 컸습니다. 그런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요새 학생들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 접할 기회가 있죠. 확실히 옛날 학생들보다는 주체성이 강해요. 자기만의 생각이 분명하죠. 그래서 대화하기가 훨씬 좋아요. 또 취향이 넓어 무용 외에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요.

학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하다 무용에 입문하셨잖아요.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신 만큼 지금의 학생들하고도 잘 통할 거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다니실 때 유명한 학교 밴드인



'킨젝스'에 몸담기도 하셨다고요. 저희 때는 통기타가 유행했잖아요. 웬만한 중고등학생은 기타를 쳐보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밴드 오디션을 본 거예요. 제가 킨젝스 7기인데, 5기가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했죠.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주체적인 학생이였습니다. 영화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고, 생계도 직접 해결하셨다고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다 무용엔 어떻게 빠져들게 된 건가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먹기만 하면 사니까 이것저것 다 해온 거죠. 사진도 해봤고, 해양생물학도 해봤고요. 영화과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애니메이션



속 움직임을 보고 '저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용과 인연을 맺게 된 시작점이지요.

그 애니메이션이 1983년 제5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탱고Tango〉(감독 즈비그니에프 립친스키 Zbigniew Rybczyński)인 거죠? 작품에서 받은 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에 등장인물이 하나씩 들어와요. 나중에 방이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데, 또 하나씩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편집의 기술인 거예요. '편집으로 저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다니, 나도 무용을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줄리아드 학교에 무용 전공으로 입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데, 운이겠죠. 줄리아드에서 20년을 가르친 선생님이 예술대학을 만드셨는데, 제가 1기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줄리아드 오디션에 도전해보라고 제안해주셨고, 통과해서 입학하게 됐죠. 저는 일단 좋은 학생이긴 했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거든요. 하하.

그렇게 3년 만에 줄리아드를 조기 졸업하셨습니다. 걸보기엔 차분하고 신사적인데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사람마다 특별한 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무용과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보니 열심히 했죠. 전 무용 외에 하는 일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 집, 일, 집 그것뿐이죠. 그것이 저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런 미니멀함이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네요. 또 줄리아드 재학 당시에 개인 무용단인 안성수픽업그룹도 만드셨습니까.

안성수픽업그룹엔 무용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랑 맞는 무용수들만 만나서 작업하기 때문이에요. 제 방법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해야 하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하는 거죠. 저기서 (연습실 한편을 가리키며) 연습 중인 이은경 씨도 저랑 함께한 지 20년이 넘었고, 이주희 씨도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서로 상대의 예술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한참 후배나 제자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전악-장미의 잔상>을 비롯해 자주 협업한 라예송 작곡가와도 관계도 그렇죠. 다른 예술가의 세계를 진심으로 진중하게 대하는 게 항상 느껴집니다.

라 선생님에겐 배울 게 많아요. 한예종 예술전문사 과정(대학원)에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 클래스가 있어요. 라 선생님과 제가 창작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전에 대한 답습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드는 부분이에요. 라 선생님은 한국 전통악기만 가지고 만들고, 저는 제가 배운 클래식 발레로 작품을 만들죠. 미니멀한 점도 저와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학생들을 같이 가르쳐보자고 얘기가 됐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도 유명하죠. 라벨 '볼레로'를 풀어낸 <쓰리 볼레로>, 스트라빈스키 음악을 안무로 재해석한 <쓰리 스트라빈스키> 같은 '쓰리'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안성수의 안무에는 "음이 보인다"며 공감각적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이번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한 쿠르트 바이일의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²⁰¹⁹ 연출도 맡으셨습니다. 정말 모던한 작품이었어요.

바이일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연출을 안 맡았을 거예요. 제가 스웨덴에서 무용수들과 한 달간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바이일(의 음악)을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스토리가 익숙하니, 시대를 다르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임했죠.

이렇게 다양한 음악과 내적으로 친밀한 안무가는 못 봤습니다.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까? K-팝도 들으시나요?

요즘에는 MTV가 생기던 시절에 나온 음악들을 다시 찾아 듣고 있어요. 그런 음악이 <스윙어게인>에 많이 들어갔죠. K-팝은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요. 하하.

역시 빠하지 않은, 개성 강한 팀을 좋아하시네요. MTV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모든 문화가 예전 것에 존중을 표하며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흐름이 생긴 거 같아요.

지금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고전에서 만들어진 리듬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연습실에 들어오는데 몸을 풀고 있는 모습과 동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몸의 감각'을 계속 느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안무를 만드는 건 저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실행해주는 건 이주희 씨예요. 하지만 제 몸이 항상 준비돼 있지 않으면 동작을 만들다 다치더라고요. 여전히 유연한 게 중요하죠. 요새는 많이 걷는 편이에요.

일터와 집만 오간다고 하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요리할 때가 즐거워요. 파스타를 제일 자주 해 먹어요. 하하. 맛있는 거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는 게 재밌어요.

'안성수' 역시 현대무용계에 믿음 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더 생겼을 거 같아요.

재주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관객들을 위해서 체계적이면서 변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 극장에 가면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끔요. 그렇게 되면 힘든 세상에서 예술가나 관객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채원

문학/소설
b.1992
@chwnetc
연희문학창작촌 2024년 입주작가

“소설을 쓰는 김채원입니다. 대학에서 문학과 문예창작을 공부했고,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 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요소의 개입 없이 오직 활자만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발생하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현재 종묘원, 나무, 열린 방으로 시작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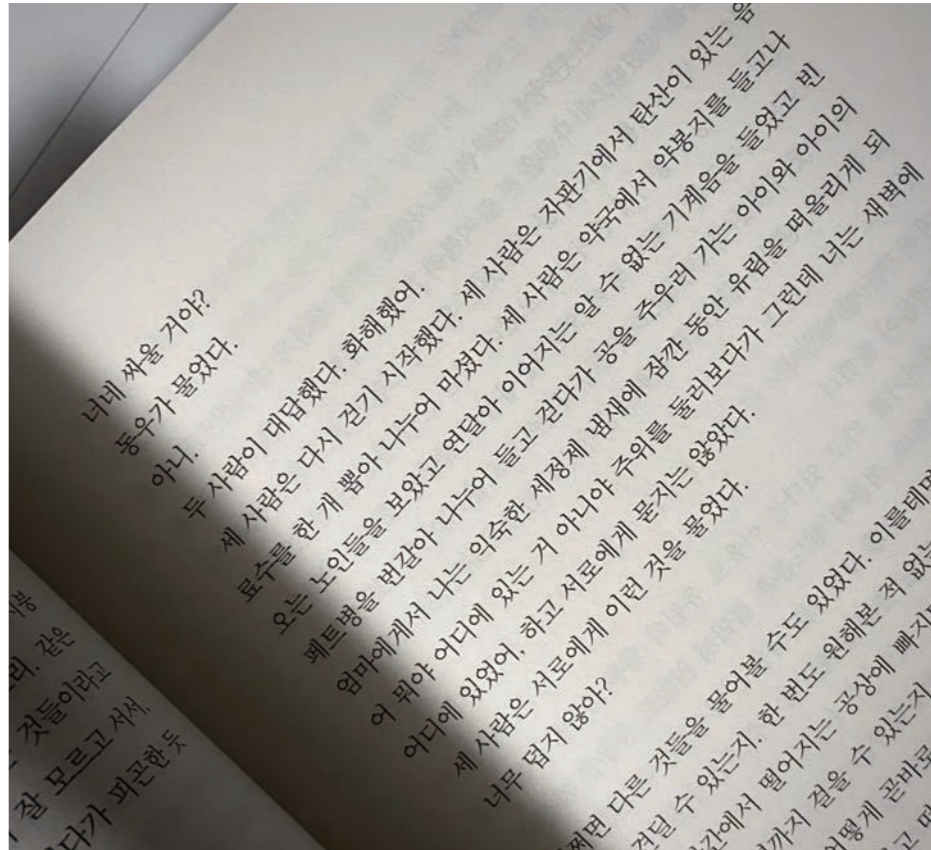
“무언가를 창작하는 행위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창작을 시작한 계기와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시작점을 알 수는 없다는 점이 도리어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은 창작 활동이라면 '그냥'이라는 부사를 붙여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는 싱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싱겁고 험거운 마음이 때로는 그 어떤 확고한 마음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소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때 스스로 저를 작가로 여겼습니다. 이때 책임감은 윤리, 도덕과 같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긍정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책임감이란, 소설에는 꼭 필요한 표현이지만 그 소설을 쓴 작가에게는 비판이 돌아올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이 결심을 하고 기어코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감이 저에게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문학은 작품이 발표되는 일과 작품에 관한 외부 반응이 나타나는 일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편인데, 그 시간차를 경험할 때 문학의 고유한 속성인 '지연'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성이 저와 잘 맞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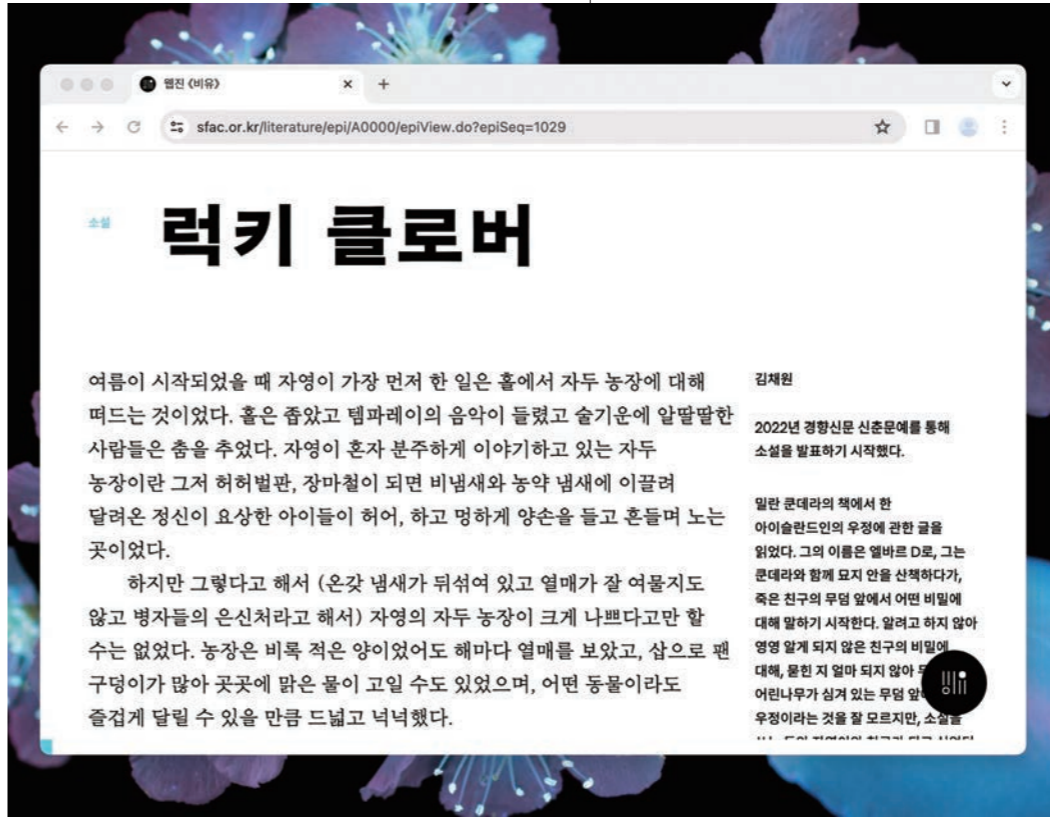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작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커다란 무게를 부여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저에게는 제가 쓴 저의 소설이 있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을 지켜보는 일이 자유롭고 좋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지로 제 소설들을 따라 읽고 나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았어'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연히 제 대표작이 되었다가 그가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어도 가만 상상해보고 있자니 일단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평범한 상태일 때는 당시에 읽고 있는 책이나 읽었던 책, 또는 영화나 회화 작품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10부작 정도의 드라마를 연달아 보기도 합니다. 평범하지 못한 상태일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아직은 유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갈 일이 없는 장소에 가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경한 장소 한복판에 저를 놓아두고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면서 그 장소의 일부가 돼 오가는 대화와 소음과 정적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금 평범한 상태가 되고, 책을 읽거나 다른 예술 작품을 접하면서 하고 있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김광균 시인의 첫 시집인 『와사등』과 마리아 투마르킨(Maria Tumarkin)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와사등』은 아무 정보 없이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시집입니다. 시의 화자가 자연을 지켜보고 언어로 해집는 모습과 '옛 기억이 하얀상복을 하고 달밤에 둔대를 걸어 내린다'와 같은 표현이 맞물리며 느껴지는 독특한 정서가 있었고, 그 정서가 몹시 현대적이어서 1930년대에 출간된 시집을 새로이 감각하게 했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은 평소에 신뢰하던 출판사의 책이라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과 알고 있지 않은 여러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타인이 이해해보려고 시도할 때 느끼는 반감과 일정 부분 자신 또한 그 상황에서 타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호하고 비껴가듯이 감상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반복해서 읽었던 부분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맨더는 이제는 알겠다고 말한다. 난 그걸 극복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겠다고.”



↑ 단편 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 웹진 [비유] 64호에 실린 소설 '럭키 클로버'



“그동안 소설을 써오면서 저는 제가 무엇을 쓰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궁금해했고 알고자 했습니다.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시기에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하며 계속될 것이고, 이제는 이것들과 더불어 제가 무엇까지 쓰게 될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활자로 목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영영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편이지만 이미 세워둔 계획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 첫 소설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총 8편의 단편 소설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일은 처음이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물성을 갖게 될지,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써둔 소설을 다시 들춰어 읽고, 고치고, 동시에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일이 저의 일이라는 사실이 매번 어렵고도 기쁩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변수에 지지 않고 이 '쓰기'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고영열

음악/한국음악

b.1993

@ko_y_y_

youtube.com/@KYY

서울스��이지2024

〈春香: 봄의 향기〉(3월 26일)



“저는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어울리는 다른 장르와 협업하며 한국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크로스오버 작업을 하는 소리꾼 고영열입니다. 우리의 음악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한국음악을 깊게 공부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한국음악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연과 방송 활동을 하고, 직접 작사·작곡·편곡·연주를 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면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는 중입니다. 2020년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고 '라비던스' 그룹 활동을 통해 한국음악의 확장 가능성을 몸소 확인했고, 한국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고 정진하는 소리꾼이 되고자 합니다.”



“판소리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요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과 에너지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도 국악과로 입학하면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국악을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음악, 많이 찾고 듣는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계기가 된 것은 2015년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다가 만든 '사랑가'였습니다. 학교 연습실에 마침 피아노가 있었는데, 건반을 눌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주에 맞춰 춘향가의 한 대목 '사랑가'를 불러 본 게 시작이었어요. 이후 2016년 두번째달의 프로젝트 앨범 『판소리 춘향가』에 참여하면서 대중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됐습니다.”

“무대에서 음악을 시작하는 순간 종종 예술가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무대에서 노래를 시작하면, 나의 삶과 이야기는 사라지고 노래의 이야기와 배경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것에 흠뻑 젖어 들게 됩니다. 내가 예술가라는 것을 크게 자각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3월 21일 『춘향』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북이 아닌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으로 녹음한 앨범입니다.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제작했는데, 아마 국악 크로스오버 앨범으로는 처음일 겁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녹음실에서 피아노와 보컬을 별도로 녹음하지 않고 실황처럼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동시에 녹음해 특별한 공간감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판소리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 가사를 모두 버리지 않고 만들었기에 더욱 소중하고 마음가짐이 깊어지는 앨범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전체 이야기를 놓고 작업했기 때문에 앨범 첫 곡부터 21개의 트랙을 차례대로 들으면 춘향가 전체 이야기를 연상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을 글로 적고 그것을 가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감은 주로 여기에서 찾고요. 외적으로도 여행을 다니며 글로 적어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바탕으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시집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병률 시인 특유의 어법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 작업에 지쳐 있는 저에게 위안과 편안함, 때론 긴장과 고뇌를 전해줬습니다.”

“피아노 외에도 북·거문고·가야금·해금 등 악기를 다룰 수 있는데요. 서양 악기인 트럼펫도 가끔 연습하곤 합니다. 언젠가 활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음악을 깊이 공부하던 과거만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음악을 공부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청년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음악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할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기분인데요.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좋은 음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살기 위한 음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이를 즐겁게 하고 위로해주기 위한 음악을 하고 있는지,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정답은 모르지만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음악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방향으로, 혹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한국음악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향성과 한국음악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공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공부 자체가 작품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해서 제 음악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악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고지신 溫故知新的 마음으로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무대기자재 공유센터 유민곤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예술이 주는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이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유민곤입니다. 공연·전시·축제·문화유산을 보며 즐거움을 느꼈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학부에서 역사문화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지역 문화재단에서 비엔날레·축제 서포터즈 등 대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행정으로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을 알게 됐어요. 졸업 후에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계기로 시민청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해 예술경영에 관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은비로소 시민에 의해 완성되는 독특한 공간인데요. 저는 '작은 결혼식'과 '내속도로 캠페인'을 맡아 운영했어요. '작은 결혼식'은 정형화되지 않고 허례허식을 걷어낸, 우리의 스토리와 개성을 담아 직접 준비하는 작고 뜻깊은 결혼식인데요. 예비부부 교육, 작은 결혼 페스티벌, 참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제작

등을 맡아 진행했고, 성혼 사례를 언론보도와 연계해 매주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작은 결혼식' 소식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25년을 산 중년 부부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결혼식 당일 쑥스러워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하시던 신랑·신부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을 보며 함께 찡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시민청 기획단과 함께한 '내속도로 캠페인'은 '내 삶을 타인이 아닌 나의 속도와 기준으로 살아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이었어요. 고민을 상담해주는 점진, 돼지띠 해를 기념하는 '잘돼지' 포차 등 시민기획단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녹아든 축제와 워크숍으로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이외에 대관 업무도 맡아 시민들이 여는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말 시민청 위탁 운영을 마칠 때까지도 제가 4년 전에 남긴 인수인계서가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보니, 늘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지만 많은 것을 배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청에서 취미 모임을 열던 직장인, 외국 대사관 직원들, 시민기획단, 재단의

사업을 즐기러 온 시민과 예술인까지. 그리고보니 드넓은 시민청 공간을 채운 건 언제나 시민이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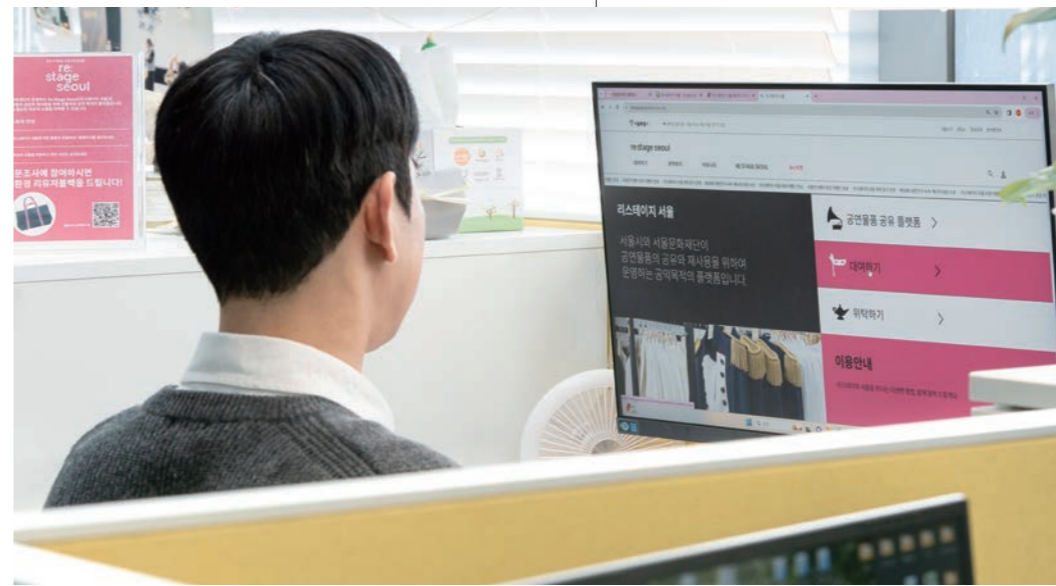
이후 다른 기관에도 근무하셨어요. 기업, 중앙행정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 정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했어요. 정규직으로도 계약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해 보며 많은 동료와 예술인을 만났죠. 각 기관의 장점을 배우며 이력과 경험을 쌓았지만, 결국 재단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문화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사업,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리스테이지 서울 re:stage seoul처럼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선도적이고 세밀하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또 940만 인구의 서울에서 예술인의 창작과 삶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예술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시민청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재단 선배배 구성원들 덕에 많이 성장했기에 재단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무대기자재공유센터의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11월 신설된 팀으로,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연이 끝나고 다시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이 어려워 버려지는 공연 물품을 재사용하고, 예술인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3천여 점의 소품·의상·잡화·가구 등 물품을 대여·위탁하고 있고, 비단 저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용자간 거래와 나눔도 매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품 구매와 보관, 폐기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창·제작 활동에도 도움을 주지요. 영국 국립극장을 비롯한



해외에선 공연 물품의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희는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과 ESG 실천에 주목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어요. 예술인은 물론, 여러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리스트레이지 서울, 어떻게 이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이용 팁은, 이용자 편의에 맞춰 제작한 누리집(restage Seoul.or.kr)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임시로 개설됐으나, 12월부터 정식으로 누리집을 열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회원 가입부터 물품 검색, 대여와 위탁, 결제, 영수증 처리까지 전 과정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팁은 '리마켓'입니다. 공연 물품의 대여·판매·나눔 등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 간 직거래 플랫폼이에요. 누리집에서 찾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리마켓의 '구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 리스테이지 서울은 현재 성수동에서 한성대입구역 인근 서울연극창작센터로 창고를 확장 이전합니다. 공연장이 밀집한 대학로와 가까운 데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찾으시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또 서울연극창작센터로 이전한 뒤에는 공연예술과 친환경을 결합한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행정이로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다양한 경험과 행복을 전해주는, 또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술교육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아이들, 처음 해 보는 것들이라며 매일 고마움을 전하던 농인 할머니들, 축제를 즐기는 시민, 축제 참여자에서 전문 기획자로 거듭난 동료, 생활예술을 즐기는 시민, 창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예술인 등등... 우리의 일이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로 시민과 예술인의 삶에 행복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장소와 공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한강, 서울 곳곳의 골목길, 미술관, 카페, 서점, 공연장, 궁궐, 심지어는 지하철 안에서까지요. 이 공간을 이렇게 꾸렸구나, 이 장소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기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공간에서 나는 어떤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고 있으면 즐겁고 일상이 환기돼요.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쉬는 날에도 반드시 어딘가 다녀와야 하는 이상한 취미도 생겼고요. (웃음)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어른이 된 재단야. 20년 동안 많은 재단 구성원, 시민, 예술인과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며 지금의 역량 넘치는 재단으로 잘 성장했어. 그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지난 시간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가자! 서울문화재단의 스무살을 축하해!



365일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노들섬은 1917년, 이촌동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를 짓는 과정에서 교량을 지탱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당시에는 일본식 이름인 '중지도中之島'로 불리다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했다. 노들은 '백로가 놓던 돌'이라는 뜻을 가진 '노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중지도'이던 시절인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도 이곳은 시민에게 도심 속 강문화의 중심지로서 사랑받아왔다. 원래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모래섬이었기에, 여름에는 피서지와 낚시터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시민이 애용하는 장소였다.

2006년 10월 4일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노들섬 문화 컴플렉스Complex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들섬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으며, 2019년 9월 456석(스탠딩 708석)의 중규모 공연장과 전시 공간, 잔디마당, 리허설 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노들섬은 아름다운 일몰·야경 명소로도 유명하다. '한강의 중심에 위치한 섬'이라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정체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주말이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노들섬을 즐기러 온 사람들과 서울 관광 코스로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그동안 민간 위탁 2019~2022 및 민간 대행 2022~2023으로 운영돼온 노들섬은 2024년 1월부터 공공 위탁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게 됐다. 이로써 더욱 풍부한 축제와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로 일 년을 가득 채워 예술과 시민을 잇는 '예술섬'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섬노들'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노들섬을 단순히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타원형 모양의 땅인 노들섬은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진다.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주로 진행되는 노들섬 서편은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러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야외 공간인 '노들스퀘어'와 '잔디마당', 중규모 공연장인 '라이브하우스'와 전시 공간인 '노들갤러리' (1·2관), 공연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진행할 수 있는 '리허설 스튜디오', 다양한 문화 행사와 소규모 공연 등이 진행되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이기도 한 '노들서가'와 '노들라운지',

← 중규모 공연이 펼쳐지는 라이브하우스
 ↙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는 노들갤러리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휴식 공간 노들서가

업무 공간인 '노들오피스' 등이 있다. 이 중 '노들서가'와 '노들라운지'는 지난 3월 공간을 개편해 연중 문화 행사와 공연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좀 더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노들섬 동편에 위치한 '다목적홀 숲'에는 올해 창단한 서울시발레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23년 한강노들섬클래식을 통해 노들섬에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박차를 가해, 올해 노들섬은 서울문화재단 축제 브랜드인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거점이 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노들섬에서 봄부터 겨울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축제를 만날 수 있다. 4월 20일 진행되는 2024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서울재즈페스타, 5월에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과 서울드림페스티벌, 6월에는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이 열릴 예정. 8월에는 케이팝 특별주간이 마련되며, 9월에는 서울스태이지 2024와 연계한 인디음악 특별주간, 10월에는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오페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5월에 앞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전시 등을 통해 예술가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일상 속 시민과 만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날, 노들섬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도 즐기고 저녁에는 잔디마당에 앉아 한강의 노을과 야경의 낭만을 여유롭게 누려보는 건 어떨까. 돛자리와 피크닉 세트를 미리 준비해오는 것도 좋지만, 노들섬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식음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올해는 노들섬에서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겨보자.

노들섬 2024년 행사 일정

4월 20일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개막 행사
4월 23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4월 26~28일	2024 서울재즈페스타
5월 3~15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전시
5월 4~5일	2024 서울서커스페스티벌
5월 26~27일	서울드림페스티벌
5월 29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6월 7~8일	2024 서울비댄스페스티벌
6월 18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6월 28~29일	서울스태이지 2024
7월 23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8월 6~11일	케이팝 특별주간
8월 13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9월 3~8일	인디음악 특별주간
9월 10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9월 27~29일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 1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10월 12~13일	한강노들섬클래식-발레
10월 19~20일	한강노들섬클래식-오페라
10월 26일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노들 폐막 행사
11월 19일	문화교양 강연 '노들픽강'
11월 29~30일	서울스태이지 2024

*2024년 연중 진행되는 노들섬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상세 정보는 노들섬 누리집(nodeul.org)과 인스타그램(@nodeul_isla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빛을 밝힌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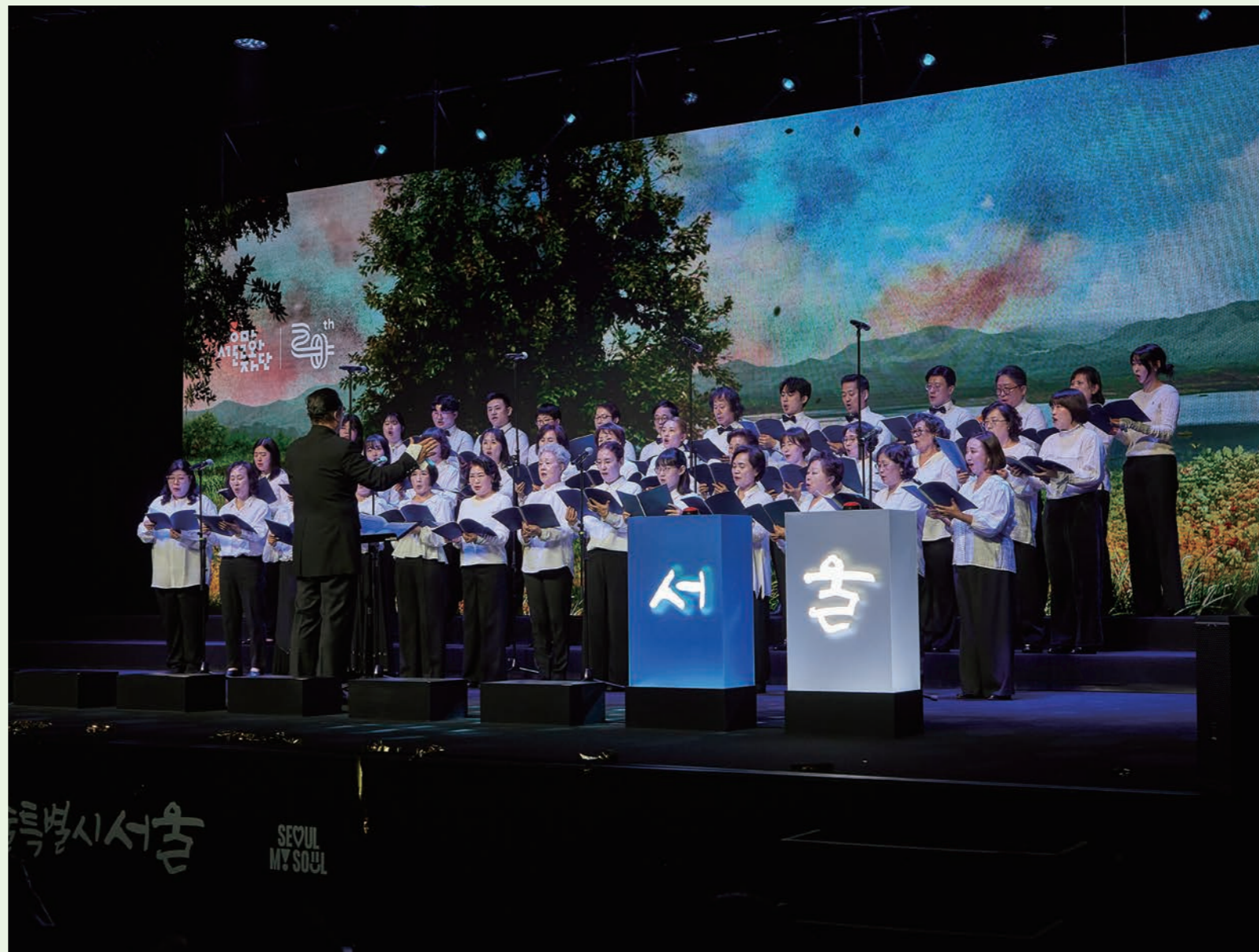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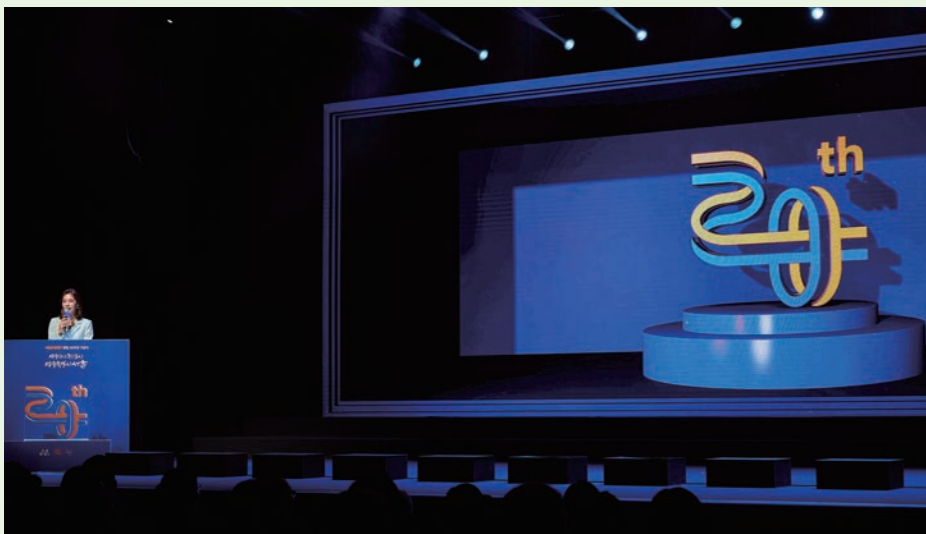
2024년 3월 15일, 서울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스무 살이란 성인이 되는 만큼 중요하고도 뜻깊은 시기다. 서울문화재단 또한 스무 살을 맞아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예술특별시 서울' 조성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올해 펼쳐질 사업을 소개하면서, 노들섬에서 진행된 스무 번째 생일 현장을 담았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서울문화재단은 20주년 기념 엠블럼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캠페인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2023년 8월, 창의혁신TF를 구성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을 추진해왔다.

TF에서 추진한 일로는 재단의 사업과 현황을 짚어보는 '미래 과제 발굴', 직원의 아이디어를 반영·실행하는 '창의혁신발전위원회', 20년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기념 백서 제작'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문화재단 20년』 백서는 재단이 진행해온 그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재단 직원과 시민,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아 3월 15일에 맞춰 발행됐다.

또한 이날 이러한 TF 운영의 성과인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노들섬에서 진행했다. 문화예술계 인사 및 예술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재단의 20년 역사와 예술가들이 보내준 축하 인사를 담은 오프닝 영상과 함께 황수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기념식이 열렸다.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재단 초대 대표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있고 있었는데, 처음 재단이 설립될 당시 제가 고문변호사를 했다고 유인촌 장관님이 말씀해주셨고,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제는 서울문화재단이 어떤 정책을 펴면 정부에서 벤치마킹한다.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재단 수행 사업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예술계가 재단과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4대 전략인 ①글로벌 문화콘텐츠 강화로 매력 있는 서울 ②예술지원 다각화로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③문화예술 향유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 ④ESG 경영 및 창의경영 실현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 예술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정적 예술지원 인프라 구축', '약자와 동행하는 문화예술' 등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비전을 선포하는 세리머니를 위해 예술가·시민 등 재단과 인연을 맺은 특별한 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재단1호 직원 오진이(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2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 장해림(99아트컴퍼니 대표, 무용가), 서울특별시 청년문화패스 선정 위원이자 재단과 함께 20세가 된 2004년생 이한음(동국대학교

재학)·정지현(한양대학교 재학) 등 10명이 함께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글자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에 참여했다.

이어서 지휘자 우주호와 서울시민으로 이뤄진 합창단 40명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서울커뮤니티합창단은 '서울찬가', '나 하나의 꽃', '아름다운 나라' 등을 선곡해 아름다운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자리를 빛낸 참석자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준 예술가들을 통해, 2004년 창립 이래 20년간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온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서울의 문화예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활약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온 파트너들과 얼마나 두텁게 신뢰를 쌓아왔는지 이번 창립 기념식을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었다.

행사에 맞춰 노들섬 노들스퀘어에는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축하하는 서울특별시 캐릭터 '소울 해치'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 등장한 대형 아트벌룬 해치는 4월 7일까지 노들섬에서 만날 수 있다. 5미터 높이의 소울 해치는 다른 장소와 다르게 밤에도 빛나는 조명을 밝히며 한강대교를 오가는 시민에게 인사를 건넬 예정이다.

2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재단에서는 올 한 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3월 21일에는 DDP에서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4월에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퀴드초이스'가 시작되고, 5월에는 노들섬에서 서울서커스페스티벌과 함께 사계절 축제인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문이 열린다.

재단은 20주년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것이다. 재단 직원들 또한 20주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고군분투하며 더 풍성하게 빛날 한 해를 준비해왔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세운 만큼 앞으로 서울이 예술가가 활동하기에 더욱 좋은 도시가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공론의장 서울문화예술 국제포럼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이 지난 3월 21일 DDP 디자인랩 디자인홀에서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특별히 '국제' 포럼으로 기획됐으며, 영국·네덜란드에서 문화예술 관련 통찰을 전해줄 해외 연사와 서울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저명한 국내 문화예술 전문가 20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는 존 뉴비긴(John Newbiggin)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다. 존 뉴비긴은 영국 문화부 장관의 특별 고문이자 공공 민간 파트너십인 크리에이티브 잉글랜드(Creative England)의 설립자로, 초대 의장을 지냈다. 그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를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축하하며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창조도시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존 뉴비긴은 팬데믹 기간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사례를 들며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한 빠른 실행을 제안했다. 또한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얻는 적극적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판단과 창의성을 믿는다면 도시는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며, 일을 실행할 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후 기조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주도로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선영 한국문화경제학회장과 양지연 한국예술경영학회장이 함께했다.

세션1은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래 도시환경 변화와 지속가능한 예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우석 교수가 서울 예술인의 현황과 활동 여건을 소개하며,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문화시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창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예술적 창조성 제고와 창조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네가지로 나눠, 경제 불황에 따른 예술 투자와 관심 축소에 대응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예술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대응책으로 논의되나 문화예술 정책에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실천적 대응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백원경 파퓰러스(Populous) 한국지사 대표가 당사에서 진행한 대규모 도시 설계 사례를 소개했다.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예술가에게는 작품 활동의 판로를 열고, 이를 공공예술의 새로운 시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변미리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 대도시의 포용도시 지향에 관한 흐름을 소개했다. 서울시 역시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도시의 포용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포용적 문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기 위해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박제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과 발제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하며 포럼 참여자와 의견을 나눴다.

세션2는 이흥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도시의 문화적 매력과 경쟁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도시의 문화는 변화할 것이며, 미래를 책임질 Z세대와 알파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문화가 도시문화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박송아 아신대학교 교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영감이자 주제인 '장소'를 중심으로 서울과 독일의 다양한 장소를 아카이빙한 사례를 통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가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로 김재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와 박은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소장이 공동 발제를 맡아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인간 중심 테크 융합형 도시의 문화예술 역량, ESG 기반 시민 참여형 도시 문화예술 역량, 상호문화형 도시 문화예술 역량을 개념화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OMA의 파트너인 크리스

반 두진(Chris van Duijn)이 발표한 세 가지 프로젝트는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 성장을 촉진한 모범적인 사례로 청중의 호응을 얻었다.

발제 이후에는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심상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포럼의 깊이를 끌어올렸다.

수많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힘써온 서울문화재단은 20주년을 맞이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외 연사가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이 도시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서울문화예술포럼은 올 하반기,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담론을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대를 바란다.



‘볼레로’는 왜 법정에 서게 됐나

3월 7일은 프랑스 국민 작곡가 모리스 라벨 Maurice Ravel, 1875~1937의 탄생일이었다. 라벨은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이끌었으며 근대 관현악의 기법을 다진 작곡가다. 1928년 초연된 그의 대표작 ‘볼레로 Boléro’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 세계 저작권 순위 1위를 지킨 작품이자,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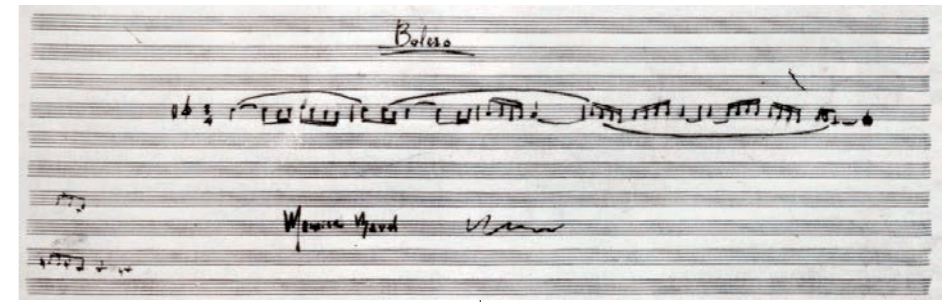
연주되는 관현악 작품 중 하나다. “볼레로’는 전 세계적으로 10분마다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17분 동안 이어지니, 언제 어디서나 연주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작곡가·음악출판사협회 SACEM의 전 대표 로랑 페티지라르 Laurent Petitgirard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인지 라벨의 소개에는 늘 ‘볼레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올해에도 그의 생일을 기해 어김없이 ‘볼레로’ 관련 소식이 들린다. 안 폰텐 Anne Fontaine 감독의 영화 <볼레로>가 3월 6일 개봉했고, 프랑스 클래식 음악 전문지 ‘디아파종 Diapason’은 ‘볼레로’ 특집호를 냈다. 그로부터 한달 전 ‘볼레로’는 또 다른 이슈로

떠들썩했다. 바로 ‘볼레로’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볼레로’의 공동 저작을 주장하는 예술가의 후손들이 SACEM을 상대로 저작권 등록을 요구하고 유효 기간을 늘려달라는 소송이 법정에 오른 것이다.

‘볼레로’는 2016년 5월 1일, 저작권 시효가 만료돼 공개 저작물로 전환됐다. 저작권은 통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다음 날, 화가이자 ‘볼레로’의 발레 무대를 디자인한 알렉산드르 브누아 Alexandre Benois, 1870~1960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볼레로’는 발레 모음곡과 관현악곡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들은 브누아가 발레 모음곡 ‘볼레로’의 공동

저작자이며, 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2039년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작권 소송이 걸린 ‘볼레로’는 공개 저작물이 되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남았다.

여기서 잠깐, 프랑스의 저작권 제도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158년 전인 1866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제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 기간만큼인 8년 120일 연장됐다. 1985년 7월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볼레로’의 저작권은 라벨이 사망한 1937년 12월 28일로부터 78년 120일 후인 2016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 것이다.



↑ ‘볼레로’ 첫 다섯 마디가 기록된 라벨의 악보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3월 개봉한 안 폰텐 감독의 영화 <볼레로>
 → ‘볼레로’ 특집호를 발행한 ‘디아파종’ 2024년 3월호 표지

SACEM은 ‘볼레로’의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접수된 새 저작권자 요청을 거부했다. 브누아의 공동 창작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후손들은 2018년 초연 당시 파리 오페라 사무총장이 브누아를 ‘저자’라고 표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SACEM을 상대로 책임 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첫 소환이 올 2월에 이뤄졌다. 만약 브누아 후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볼레로’ 저작권은 2039년까지 연장된다. SACEM 측은 “‘볼레로’는 전 세계적으로 즉각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브누아가 공동 저작자였다면 그의 생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방의 동기는 금전적 이익이며, 이는 (라벨과 브누아) 두 사람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볼레로’의 권리 보유자와 출판사에 지급된 저작권료 총액은 약 5천만 유로(한화 약 720억 원)에 이른다. 그런 데다 라벨이 미혼으로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나 상속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937년, 라벨의 사후 그의 저작권은 형제 에두아르 라벨 Édouard Ravel, 1878~1960에게 넘어갔고, 에두아르마저 사망한 후 그의 간호사와 간호사의 남편, 흑심을 품고 접근한 SACEM의 법률이사까지 저작권을 차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됐다. 법률이사는 유명출판사를 차려 전속 악보 출판사인 뒤랑 Durand 출판사와 공방 끝에 출판 저작료의 지분 50%도 확보했다. 파리 근교의 라벨 생가는 보수할 돈이 없어 천장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데, 천문학적인 라벨의 저작권료는 정작 라벨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SACEM과 브누아 가의 소송 결과는 6월 24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협회의 역할에 대한 판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저작권 신청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단순한 등록 대행 단체가 될지, 아니면 저작권의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직도 다리우스 미요 Darius Milhaud 1892~1974, 프랑스 시 폴랑크 Francis Poulenc 1899~1963, 페데리코 모포우 Federico Mompou, 1893~1987 등 20세기를 풍미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 가운데 저작권이 유효한 이들이 꽤 많은 상황에, 공개 저작물로 이렇게 쓰일 작품의 저작권을 악용해 수익 창구로 활용할 ‘빌런’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볼레로’는 어떤 작품?
 라벨이 예술가로서 정점에 올랐던 50대 시절, 스페인풍 작품을 원한 발레 뤼스 Ballet Russe의 무용수 이다 루빈시테인 Ida Rubinstein의 의뢰로 작곡했다. 라벨은 안달루시아 전통춤 볼레로의 리듬을 스내어 드럼으로 반복하며, 하나의 악기로 시작해 점차 악기를 하나씩 겹쳐나간다. 셋여림은 pp(피아니시모)로 시작해 ff(포르티시모)로 끝나는 하나의 크레센도로, 음악이 점차 풍부해지고 고조된 피날레로 끝난다. 단순한 구조에 무아지경에 이르는 파격적인 형태는 당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발레 버전은 모리스 베자르 Maurice Béjart의 1961년 안무작이 잘 알려져 있다.



2024년
신청자 모집

20세부터 23세까지 연 20만 원 문화관람비 지원



서울시가 **2001~2004년생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 28일(목)부터 4월 17일(수)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문의 1533-3427

COOL
LIFE
MUSIC

박현갑의 문화의 창
거리를 거닐며 도시의 철학자를 만나다
동시대적 고전 읽기
고도를 함께 기다리는 마음
삶의 책장을 넘기며
서울, 가장 화려한 회색도시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기 훈련
일상 결의 공예
세계가 주목한 K-공예의 면면

거리를 거닐며 도시의 철학자를 만나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거리를 걷다 보면 묵언 수행하듯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오면 보이는 거인이 그런 경우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은 아틀라스다. 지구본을 든 채 하늘을 향한 그의 탄탄한 몸에서 역경을 굴복하는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다. 광화문의 <해머링 맨>은 망치질로 분주하다. 경제 발전에 대한 증언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 몫을 다하려는 노동자들의 굳센 의지를 웅변한다. 청계천 삼일교 주변의 커다란 흰색 고래는 머리와 꼬리가 물살에 씻긴 듯 윤기가 난다. 반면 몸통은 앙상한 뼈로 되어 있다. 환경 보존에 관한 인간의 관심을 촉구하며 푸른 바닷속 자유로운 고래처럼 사람들의 자유와 희망을 응원하는 듯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나만의 감상이다. 설치 장소도, 바라보는 방향도 제각각이지만, 공공미술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역사의 기록자’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돈을 들여가며 찾지 않더라도 이런 ‘거리의 친구들’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미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와는 상관없는 장식품인 양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다.

필자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거리 미술관’이라는 이름 아래 도심 속 공공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을 널리 알려 작가에게는 창작 의욕을 북돋고,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고 싶었다.

‘말 없는 존재’와의 대화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 작품 앞에 서서 외관을 본 뒤, 작품 주변을 돌면서 작가의 창작 의도, 작품의 재질이나 제작 기법 등 나만의 감상 포인트를 천천히 살펴본다. 기획 의도 등을 담은 작품 안내판은 감상 후에 본다. 미리 보면 작가의 의도에 얽매이며 자유로운 감상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상상의 나라를 펴는 즐거움을 안긴 작품들 가운데 조각가 체미지의 <아름다운 꿈꾸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를 나오면 시야에 들어오는 썸지마당에 있다. 노랑과 빨강 등 밝은 색감의 풍선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한 작품이다. 풍선을 붙잡고 하늘로 날아가려는 흰색 옷차림의 소녀도 보인다.

취업준비생이든, 정년퇴직을 앞둔 가장이든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감상 포인트는 다를 수 있다. 풍선을 잡은 소녀를 중심으로 감상에 빠질 수도 있고, 소녀를 희망의 나라로 데려다 줄 풍선에 눈길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소원이나 꿈의 모양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다”면서, “저마다

즐거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상가 건물 입구에 있는 <꿈꾸는 앨리스a Dreaming Alice>도 그의 작품이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아동소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토대로 만든 영화에 나오는 “모든 모험은 첫걸음이 필요하다”라는 대사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풍선을 잡고 하늘로 날아갈 채비를 끝낸 듯한 서울의 꿈꾸는 소녀와 달리, 인천의 앨리스는 머리를 풍선 더미에 파묻은 채 줄무늬 스타킹을 신은 두 다리만 하늘로 내보이고 있다. 지하 세계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인 앨리스의 두 다리에 주목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몰라주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보지 않을 건가요”라며 투정을 부리는 것 같다.

광화문 네거리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는 영겁을 담은 조각 작품이 있다. 호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조각가 최병훈의 <일필휘지In One Stroke>라는 작품이다. 인도네시아 채석장에서 가져온 무게 3톤의 현무암을 깎고 다듬었다고 하는데, 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광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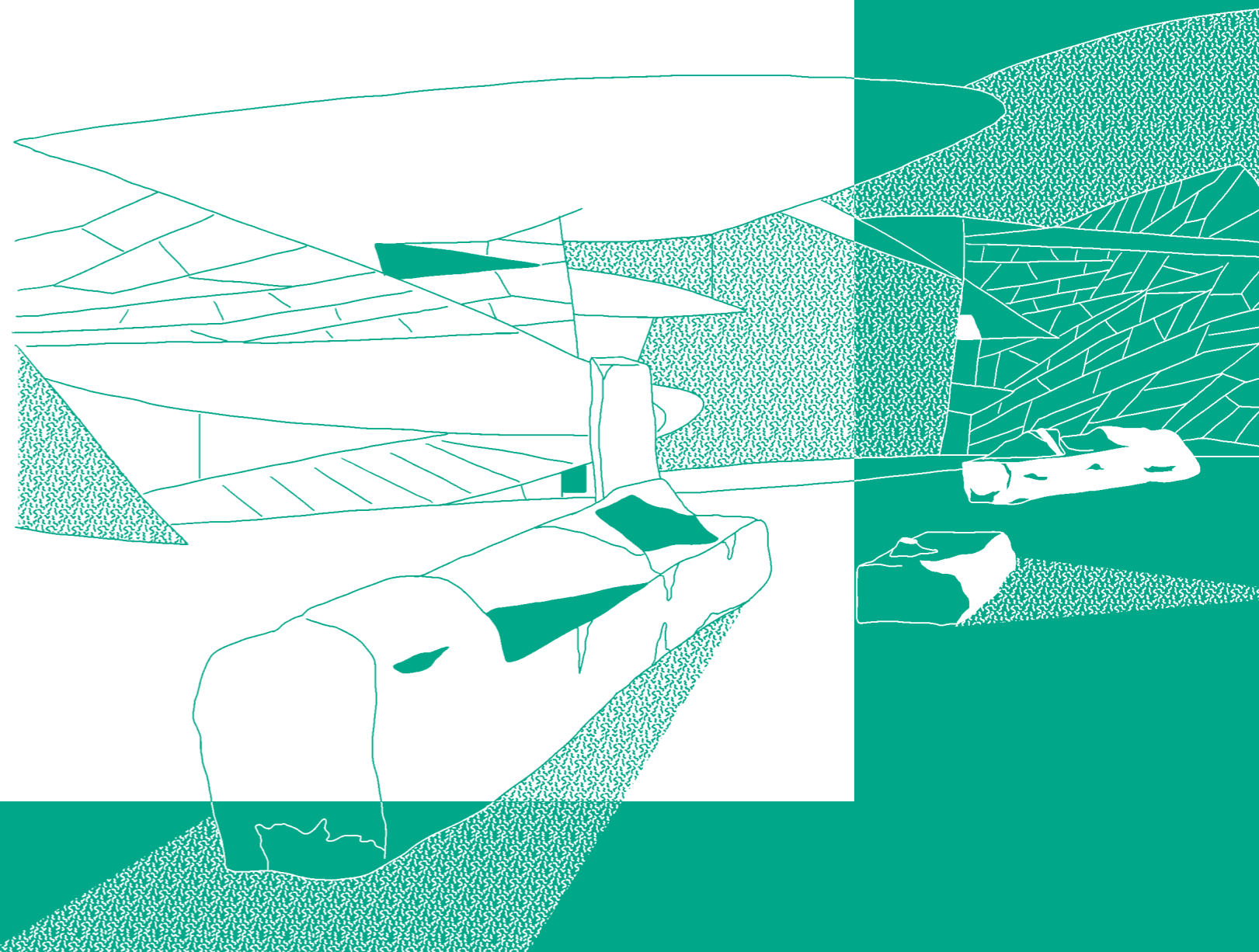
작가는 “수억 년의 세월을 품은 현무암의 영원성에 힘차게 한번 휘두르는 붓놀림이라는 순간적인 예술성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코끼리 상아처럼 한쪽으로 굽은 검은색 현무암이 자연 그대로인 거친 갈색 현무암 위에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듯, 하나는 하늘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를 향한 모습이다.

청와대 본관 접견실과 로비의 가구도 만든 바 있는 그의 조각은 사람들이 감상하지 않을 때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가구인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다. 최근 카타르 국립박물관 내 중앙 광장에도 그의 작품 10점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소설가이든 조각가이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사회가

만든 규율이나 관습에 얽매어 이러한 상상력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면 술집을 찾고, 일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출근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리를 거닐다 공공미술 작품이 보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건네보자. 일상의 고단함을 털어버리고 삶을 풍요롭게 할 ‘나만의 거리 미술관’을 만들어보자.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일거양득 아닌가.



고도를 함께 기다리는 마음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지난겨울, 나는 ‘고도Godot’와 두어 번 스쳤다. 부조리극의 정수, 사뮈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1952의 두 주인공, 에스트라공Estragon과 블라디미르Vladimir가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고도 말이다. 사실 고도는 끝끝내 등장하지 않으니 나는 고도를 본 적이 없다. 더욱이 베케트조차 “고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니 고도가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곡을 처음으로 접하고 고도를 기다리는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의 절박한 바람 속에서 고도를 보았듯, 나는 또다시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말과 몸 안에서 고도를 발견했다.

첫 번째 만남은 먼 곳으로부터 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고도를,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작년 11월 29일에 열린 ‘가자 모놀로그The Gaza Mono-Logues’ 낭독회 자리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가 다시금 포연과 포성에 휩싸이자, 팔레스타인 라말라 소재 아슈타르극장Ashtar Theatre은 전 세계 연극인에게 연대를 요청했다. 33명의 가자지구 청소년이 각자가 경험한 전쟁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엮어 만든 ‘가자 모놀로그’ 2010를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11월 29일)에 낭독하거나 상연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 소식을 접한 번역가 이에원은 소설미디어를 통해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대본을 한국어로 번역·공유했고, 이를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함께 낭독하는 크고 작은 자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고도를 본 것이다.

전쟁은 이해해도 전장戰場은 그리할 수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제아무리 복잡한 역사를 가진다고 해도 긴 시간을 되짚어 난잡하게 뒤엎킨 맥락을 찬찬히 풀어 나가다보면 결국은 문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타자의 논리적 언어 안에 그곳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슈타르극장이 청소년들의 증언을 함께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일 터, 부디 당신이 전문을 찾아 읽어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전에 당장 이들의 언어를 당신의 몸 안에 잠시나마 담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자 모놀로그’의 일부를 옮겨 적는다.

가자가 매일같이 변하니까 내 꿈도 끊임없이 변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다시 백 보 뒤로 돌아가야 하죠. (...) 매일 밤 새로운 새벽이 오길 기다리며 밤을 새우는데... 아침이 밝고 보면 지난 아침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수하 맘루크Saha Al Mamlouk, 1995년생, 투파(전규연 옮김)

비극은 모든 것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모든 구덩이에는 바닥이 있지만 가자에는 바닥이 없어요. (...) 생각을 계속하는 데에 지쳤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린 간청할 수밖에 없고, 신께서 답해 주시겠죠. 여러분에게도요. 안녕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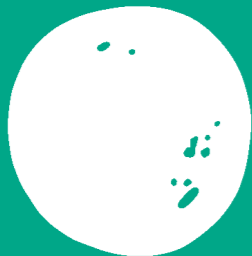
아흐마드 루지Ahmad El Ruzzi, 1993년생, 웨흐다 대로(김진아 옮김)

수하 맘루크는 ‘새로운 새벽’이라고 썼고 아흐마드 루지는 ‘신’이라고 칭한 그 존재, 현재에 대한 절망 속에서 한마음으로 희구해보지만 야속하게도 끝끝내 도래하지 않는 그 존재는 분명 고도다. 그래서 고도가 대체 누구냐고? 아무렴 어떠한가. 신이라고 믿는 이에게는 신일 것이고, 다른 이름을 떠올리는 이에게는 다른 것일 터다. 유일신적 실재를 전제하는 것은 서구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일 뿐. 무엄하고 불손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종교가 있든 없든—일상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마다 누군가를 찾아 부르고, 그 부름의 대상은 그 순간 우리의 ‘신’이 된다. 하여 ‘신’을 경유하는 그렇지 않은 일상의 단절을 희구하는 가자 청소년들의 기도 속에서 나는 고도를 보았고, 또다시 그를 원망했다. 이 기도가 발화된 2010년 당시 10대 중반이던 이 아이들이 이후 겪었을 끝없는 폭격과 공습의 밤과 불안하고 불길한 현재의 안부를 떠올리자니, 그를 원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가 누구든 그가 미웠다.

그러나 베케트의 작품 속에는 ‘이미 곁에 있는 고도’가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처음 공연되었을 때 고도Godot가 ‘신’을 뜻하는 영어 ‘God’와 프랑스어 ‘Dieu’의 합성어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풀이의 효용은 고도의 정체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서로를 고고Gogo와 디디Didi라고 부르고, 이는 이들이 이미 서로에게 고도가 되어주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것이 지난겨울—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에서—내가 만난 두 번째 고도였다.

아용다용하다가도 상처를 보듬어주고, 꿈 이야기는 질색이라면서도 자장가를 불러주며, 인제 그만 헤어지자고 해놓고도 둘 중 한 명이 혼자 남겨질까 염려하는 고고와 디디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손을 꼭 맞잡고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노총배우 친구·박근형을 보고 있자니, 이들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절을 함께 견딘 두 노장이 서로에게 보내는 다정함에 울컥했다. 고도 없이도 고고와 디디만으로, 아니 친구와 박근형만으로 충분했다.

기실 베케트는 그 누구도 홀로 두지 않았다.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인 포조Pozzo와 럭키Lucky도 내내 함께다. 1막과 2막 사이 한 명은 ‘병어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장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체의 기능을 잃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닌가. 두 사람은 다르게 늙지만, 같이 늙어온 셈이다. 심지어 나무는 돌과 함께이며, 고도는 소년과 있다. 베케트는 이 작품을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프랑스 남부로 피신해 있을 때 구상했다고 하는데, 그가 숲속여 종전을 기다리던 그 모든 순간에—다른 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나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자연사한(이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파트너 수잔Suzanne Déchevaux-Dumesnil이 함께했다고 한다. 허니 이 작품에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과 서로의 걸을 지켜주는 이에 대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다. 작품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 무엇이 더 이 시대의 감각인지는 모르겠다. 허나 내일의 감각은 부디 함께 기다리는 이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법과 제도, 윤리와 도덕이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서로에게 '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그런 욕망을 응원하고 지지하길 바란다. 독백으로 채우기엔 기다림이 너무도 오래도록 지난하게 이어지곤 하니 말이다.

이슈타르크극장에서 또다시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편지를 써달라는 요청—'Letters to Gaza'—이다. 가자지구 청소년의 모놀로그와 우리의 편지가 만나면 하나의 대화dialogue가 될 터, 그렇게 이 시대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다시 완성될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라건대 당신도 함께라면 좋겠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자 모놀로그'에 등장하는 이름은 영어로 표기했습니다. 관련 누리집(gazamonologues.com/copy-of-team)과 웹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장 화려한 회색 도시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서울은 회색 도시이며 당최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모두가 심심찮게 하고, 듣는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 인파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떠밀리던 기억부터 시작해,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동네 가게들, 기회가 많은 만큼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순간들, 누군가 집에 가지 못한 채 만들어내는 황홀한 야경이 순식간에 떠오르는 걸 보면 말이다. 나는 그런 도시를 다시 떠나는 대신 어떻게든 자리 잡아 서울을 기반으로 8년째 일하고 있다. 나름 Based in SEOUL인 것이다. 첫 회사에 들어간 이후 디자이너 소개 글에서 처음 본 단어였는데, 뭣도 모르면서 이 말이 몹시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 눈에 들어온 『서울의 워커홀릭들』²⁰²⁴(홍정미 외, 인다)이라는 제목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책의 뒷면에는 이런 소개 글이 적혀 있다. "다르게 일하고, 새롭게 만나고, 가치 있게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확고한 취향과 신념으로 브랜드 성공을 이끈 워커홀릭들의 일, 사람, 돈에 대한 솔직한 문답". 책에 실린 열두 이름은 이미 애용하는 브랜드의 대표거나 궁금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소개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당장 읽고 싶어졌다.

책을 처음 펼칠 땐 딱 두 가지 생각이었다. '소위 성공한 브랜드의 대표는 돈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세속적 궁금증과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기쁨. 당연히 읽는 순서도 돈, 일, 사람 순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저자의 글까지 읽고 나니 돈은 맨 나중에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맞았다. 돈 '만'을 앞세워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과 사람을 챙겼더니 돈이 따라온 경우가 더 많았다. 이들은 양말, 와인,

안경, 방승, 화장품, 음식, 수건, 리추얼 등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품목만큼이나 이들의 일은 딱 잘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혹여 설명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들의 일은 당사자의 긴 설명이 필요했고, 그 설명 속에서 나는 이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생필품을, 자신을 맘껏 드러내는 취향의 물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아이헤이트먼트데이 대표 홍정미, TWB 대표 김기범), 내 사람에게는 항상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다짐하고 노력한다는 것(윤YUN 디렉터 윤지윤, 녀 대표 박정목),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프리랜서 아나운서 김호수, 플레이크 대표 최기웅),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새로운 미래를 쌓아가는 것(부포컴퍼니 대표 필립포), 모두가 '이제 좀 편해지겠네'라고 말하던 순간에 자신의 신념을 따라 회사를 떠난 것(리틀사이닝모먼트 대표 이종화, 밀미 대표 손하빈), 회사를 꼭 떠나지 않고도 자신과 자기 일을 지킬 줄 아는 것(설화수 브랜드마케터 오하나, 기업 콘텐츠전략팀장 이형기, 분더샵 헤드 바이어 이연수). 이 외에도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웠으며, 기꺼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시도했다.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정답보다는 삶의 레퍼런스를 모으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이 책은 훌륭한 레퍼런스 모음이다. 열두 명의 이야기는 일, 사람, 돈에 대한 분량의 편차도 꽤 있는 편인데, 평소의 나라면 분량을 정확히 맞추는 걸 선호했겠으나 이번만큼은 이 약간의 들쭉날쭉함이 훨씬 좋았다.

이 브랜드는, 이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끄럽게 쓰인 브랜딩 이야기 또한 그것대로 귀하지만, 이미 이들은 매끄러운 브랜딩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인간미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몇몇 저자들의 글 말미에는 짧은 인터뷰가 달려 있는데, 책을 읽는 내게 던져봐도 충분히 좋은 질문이었다. 너에게 일과 사람과 돈은 무엇이나고. 어떤 답은 나도 모르게 술술 나와서 깜짝 놀랐고, 어떤 질문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서 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열두 명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내게 질문할 수 있던 것엔 이 책의 만듦새가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책은 한 페이지를 위에서 아래로 끝까지 읽는 구성이 아닌 책 전체를 3단으로 나눈 구성이었는데, 이 과감한 구성 덕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 번씩 읽는 느낌이라 짧은 글임에도 깊게 알게 된 감상이다. 정말이지 이 3단 구성을 제안한 디자이너도 꽤 워커홀릭 아닐지 추측해본다. 워커홀릭은 워커홀릭이 하는 말들을 잘 전하고 싶었을 테니까.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책 디자인이었다.

일은 원래 재미없는 것이고, 일에서 자아를 찾을 필요도 없다. 일과 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계 수단으로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8년간 일하는 내 모습을 관찰한 결과, 나라는 사람은 일을 좋아하고 잘 해내고 싶어 한다. 매일 9시간씩 꼬박꼬박 나의 하루를 털어가고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래서 어느 시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큰 키워드인 일을

기왕이면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이 반가웠고, 다음 시리즈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서울은 앞으로도 영영 회색도시일 테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단순한 회색이 아니라는 걸. 서울의 회색은 다채로운 색이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색이다. 서울의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멋지고 건강하고 씩씩한 브랜드들이 우리네 삶에 새로운 색을 하나라도 더 보태고자 애쓰고 있다. 나는 여러 색깔이 섞이고 섞인 회색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회색 도시를 베이스 삼아 일할 앞으로의 수많은 워커홀릭이 기대되는 이유다.





음악 듣기 훈련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내 귀에 별 감흥 없는 음악을 억지로 들을 필요는 당연히 없다.

기껏해야 상성, 하지만 그래도 상성이다.

오카다 아케오 『음악을 듣는 법』, 2023, 37쪽

일본의 음악학자 오카다 아케오 Akeo Okada는 음악의 좋고 싫음이 인간-

음악의 상성 때문이라 말한다. 상성, '서로 성질이 맞음, 또는 그런 성질'이라는 뜻이다. 수백 년 동안 인간사의 곡절과 함께 발전하고 변화해온 클래식 음악부터 자본을 움직이며 세계인의 일상 곳곳에 침투하는 동시대 대중음악까지, 음악을 둘러싼 그 많은 논쟁과 담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결국 인간이란 그저 하나의 감성 수신기일 뿐. 나에게 좋은 음악과 당신에게 좋은 음악은 따로 있는 것이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언뜻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상성'은 사실 사람의 '내면의

도서관'의 이력에 의해 규정된다. (...) '상성이 좋고 나쁨'은 우리 각자의 인생 자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카다 아케오 『음악을 듣는 법』, 2023, 37쪽

아케오가 문학 이론가 피에르 바야르 Pierre Bayard의 표현을 빌려 쓴 '내면의 도서관'이란, 이를테면 지금까지 들어온 음악, 제목이나 음악가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음악, 주변인이 좋다고 혹은 형편없다고 했던 음악, 어디선가 비평을 읽어 본 음악 등 기억의 단편들로 이루어진다. '나'라는 감성 수신기는 내면의 도서관으로부터 주파수를 설정해 좋은 음악들을 걸러낸다. 그저 그런 음악을 굳이 참아가며 들을 필요는 물론 없지만, 나의 '내면의 도서관'이 풍부하지 못해 좋은 음악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다.

음악 감상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신체적인 행위라 언어화하기 어렵다. "문명화된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은 고대 주술의 잔재일지도 모른다"(45쪽)는 아케오의 표현만큼은 아니더라도 형체 없는 소리에 대한 몰입 경험이란 지극히 정신, 감각에 의한 것이라 '~처럼', '~같은' 식의 추상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다. 나의 '내면의 도서관'과 타인의 '내면의 도서관'은 때때로 대화를 통해 마찰하거나 충돌하기도 한다. '내면의 도서관'이 비슷한 사람 간의 대화라면 눈빛만으로도 척척 알아차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엇갈리는 사람끼리의 논쟁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언어로 하는 대화처럼 되고 만다. '내면의 도서관'이란 "신체

생리의 일부,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 자체인 셈"(36쪽)이라는 점에서 서로 깊이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큰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 '내면의 도서관'이란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만의 도서관 음악 섹션을 풍부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음악 경험치를 늘리는 게 좋겠다. 시간을 내어 공부하듯 음악을 들어나가는 어렵겠지만, '아, 저 음악이 나랑 주파수가 맞는구나' 혹은 '음, 저 음악은 나와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유의미한 신호가 있으려나'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전 연습

음악이란 사람이 발하는 무엇이기엔 선율, 리듬, 표현의 굴곡, 질감 같은 것들에 창작자의 어투나 오라 aura, 신체적 특징들이 새겨져 있다. 이 음악가가 청자인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 혹은 어떤 심상을 그려 보이려는 걸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 감각을 느끼고 추측하는 게 이상적인 음악 감상 방식일 것이다.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이 버겁다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짧게나마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한국에서 거의 연주된 바 없는 미국 작곡가 캐롤라인 쇼 Caroline Shaw의 'Entr'acte'를 함께 듣고 싶다. 그에 대한 짧은 문장들을 나열해본다.

이 곡의 길이는 11분이다. 2019년 발매됐다. 앨범 제목은 '오렌지 Orange'.

첫 번째 수록곡이다. '오렌지'라는 제목은 자신의 앨범을 연주한 아타카 콰르텟 Attaca Quartet과 함께 가꾸고 있는 정원을 이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곡은 밝고, 야생적인 감각을 내뿜는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로 현악 4중주가 서로 포개지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앨범은 2020년 제62회 그래미상 최우수 실내악/양상블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13년, 쇼는 서른 살 나이로 풀리처상 음악 부문을 수상해 큰 관심을 모았다. 최연소였다. 작곡가로서 그는 현악 4중주 편성에 강점을 보이고, 목소리에 집중된 이야기를 많이 쓴다. 스스로 보컬리스트이기도 하다. 그에게 풀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준 앨범도 '여덟 목소리를 위한 파르티타 Partita for 8 Voices'다. 이 앨범에서 그는 잘 다듬어진 음색과 흥얼거림, 투덜거림 같은 숨결을 독특한 흐름으로 연결했다.

뉴욕 필하모닉이 팬데믹 기간에 개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기리는 공연에서 백인 남성 작곡가의 작품만 포함해 비난받아 변경된 프로그램의 첫 곡이 쇼의 'Entr'acte'였다. 유색 인종 음악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은 여전했지만, 연주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보도됐다. 대중음악가와 협업하거나 영화음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음악 바깥에도 관심을 보여 '매버릭 maverick'(개성이 강한 사람)으로 불리거나, 전통 음악 scene 으로부터 '관련성을 가지라'는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쇼는 굴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일 아침 달걀을 삶는 동안 들은 음악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 곡을 그냥 들었을 때와 몇 가지



Entr'acte

정보, 의견들을 접하고 들었을 때 감흥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음악은 그 자체로 들어야 한다, 음악을 둘러싼 말들이란 편견을 낳을 뿐, 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다. 풍부한 감각을 위한 단서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세계가 주목한 K-공예의 면면

김수진 노블레스 라이프스타일팀장

K-팝의 인기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거세다. 한국 문화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드라마·웹툰·뷰티·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 BTS·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스타의 해외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 행렬을 이루고, 치킨과 떡볶이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줄 서서 먹는 메뉴가 됐으며,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콘텐츠가 넘친다. 공예와 디자인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전시가 부쩍 늘어난 것이 그 증거. 왕조 시대의 유물이나 전형적인 도자기에 국한된 전시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현대적 의상, 유서 깊은 개인 컬렉션, 독창적인 세라믹 작품 등 주제도 한결 다채롭다. 전시 내용과 구성을 통해 해외가 주목하는 ‘한국적인 미’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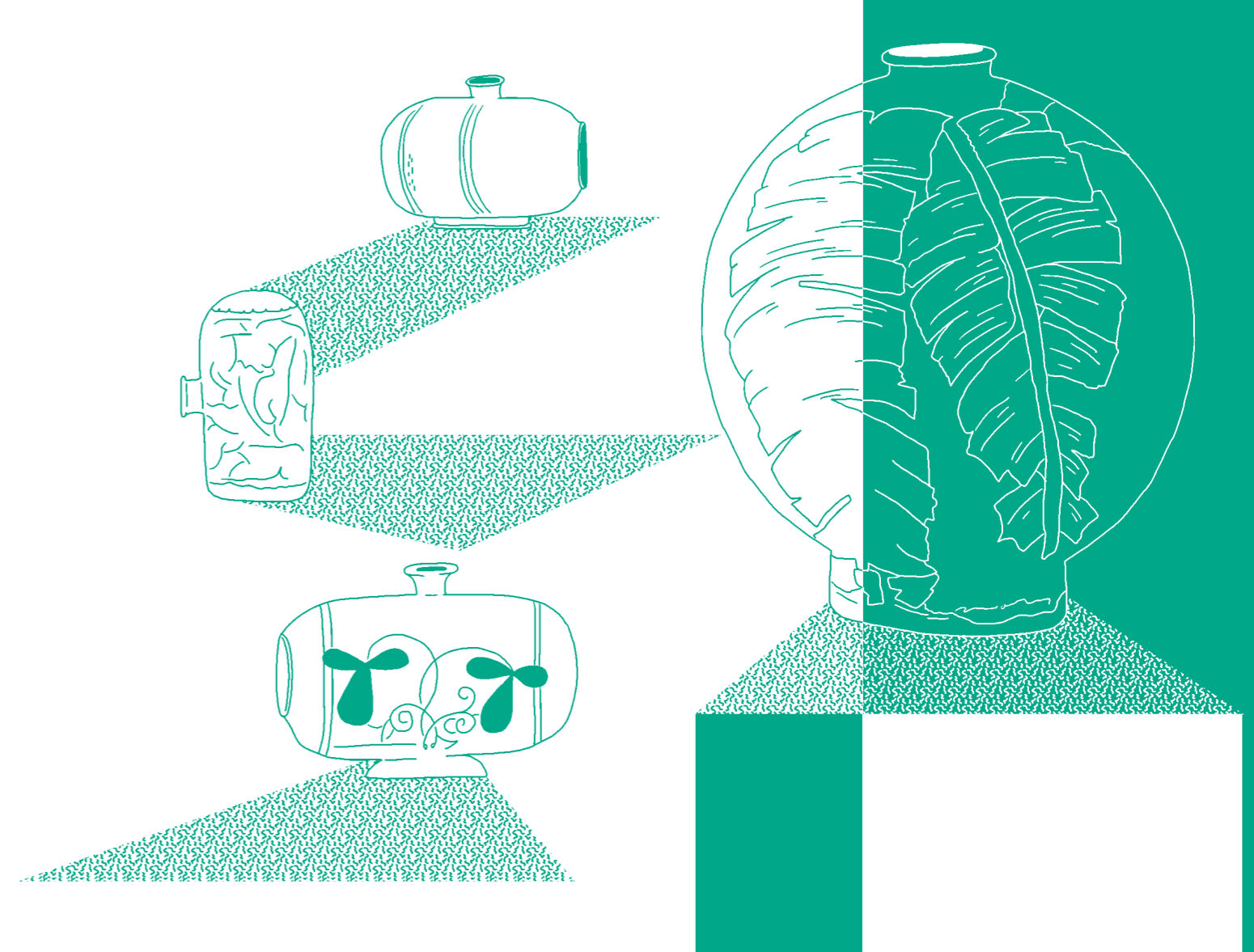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공예와 디자인 관련 전시를 살펴보면,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눈에 띈다. 미술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파인 아트를 주로 소개해온 이곳에서 미국이 아닌 아시아권 국가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대대적으로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주목된다. 3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한류! 코리안 웨이브 Hallyu! The Korean Wave>는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문화 강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혁신과 저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원류를 찾아 나선다. 전통 기물부터 한국만의 고유한 미감을 보여주는 공예 작품, 아이돌 스타를 더 빛나게 하는 의상, 인기 드라마의 세트와 소품 등 ‘손맛’이 담긴 전시품이 가득하다. 아트 큐레이터 디자이너 박소희와 <넥스트 인 패션 Next in Fashion> 우승자 김민주가 디자인한 드레스, 한국 아티스트 함경아가 디자인하고 북한의 자수 작가가 만든 대형 바느질 작품 등이 하이라이트. 지난해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에서 첫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을 이끈 전시의 순회전으로,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총체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미국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에서는 한국 패션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4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어질 <코리안 큐티르: 혁명의 시대 Korean Couture: Generations of Revolution>가 그것. 17세기 귀족 의상부터 한국 현대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작업까지

약 30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조선 왕조의 의상을 모티프로 독보적 세계를 구축한 앙드레 김, 한국의 역사적 레퍼런스와 쿠티르 기법을 결합해 실험적인 실루엣, 콘셉트 등을 선보인 이상봉, 젠더 플루이드 경계를 탐험하면서 해체적인 의상을 디자인하는 신규용과 박지선의 브랜드 ‘블라인드니스 Blindness’ 등의 특별한 의상을 만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리에서 열린 오프 쿠티르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최초의 한국 디자이너 이진윤이 제작한 섬세한 바느질 기법이 돋보이는 이브닝 드레스, 예술가이자 제지가인 에이미 리(Aimee Lee)의 뽕나무 껍질 드레스 등도 전시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적 쿠티르’의 정의를 짚어보고, 현대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한편 LA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는 미술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국 미술품을 기증한 체스터와 캐머런 장 부자의 컬렉션을 소개하는 전시 <한국의 보물: 체스터와 캐머런 장 컬렉션 Korean Treasures from the Chester and Cameron Chang Collection>을 진행하고 있다. LA 첫 총영사였던 아버지 장기환과 함께 1949년 미국으로 이주한 체스터 장(Chester Chang, Chang Jung Ki)이 오랜 시간 가족 컬렉션으로 꾸준히 수집해온 고려와 조선의 도자기, 서화 병풍, 20세기 중반의 남북한 유화 등 35점을 전시한다. ‘한국의 보물’이라는 제목처럼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진귀한 작품이 감상의 즐거움을 더한다.

덴버 박물관(Denver Art Museum)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분청사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 <완벽하게 불완전 Perfectly Imperfect: Korean Buncheong Ceramics>을 선보인다. 조선 초기에 유행한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백토를 입힌 뒤 유약을 쓰지 않고 구워낸 도자기. 분장 기법을 거쳐 다채로운 무늬를 새겨 넣어 울동감 있으면서 활달하고 개성 넘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시는 15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제작된 분청사기 약 70점을 통해 정교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소박하지만 세련된 특유의 매력을 조명한다. 익살맞은 물고기 무늬가 새겨진 병, 코끼리 형태의 제기 등 개성 넘치는 작품을 통해 한국적 독창미의 근간이 되면서도 근현대 미술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 영향을 미친 분청사기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ANNIVERSARY

스무살재단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느라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동료들 화이팅!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COMMENTS

4월호 예술인 아카이브 코너를 준비하면서
김채원 작가님의 단편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매월 반복적으로
[문화+서울]을 만들고 있지만, 수국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현관의 존재를 볼 줄 아는 세밀한 감각을
놓치지 않기를 꿈꿔봅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CONTRIBUTOR

'최근 한 달간 작성 기사수 319건' 간혹 선배의
네이버 기자 홈 화면을 보면 견연과 겸손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연 기자 시절 그가 들르지 않는 '첫공'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스우파' 열풍 뒤 무용 전공자의
의견까지 청취하는 포용과 섬세함이 그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니 인무가 안성수 인터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인터뷰어로 떠올릴 수밖에요.
이재훈 기자님.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중음악 판에서도
공연판의 정을 잊지 않고 인터뷰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EPILOGUE

Based in SEOUL.
Waiting for Godot.

전민정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 2차

서울예술교육랩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 프로그램 공모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프로그램 공모

공고 일자 **2024.4.1.월 10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및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접수 기간 **2024.4.8.월 10시 - 4.19.금 17시**

※ 사업 별로 사업 목적, 대상, 운영 내용, 심의 일정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예술교육랩
예술교육정책팀
02-758-2105

•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02-2697-0013

•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02-3785-3194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서울문화재단
공고문 확인하기

